

정성전 · 우영진 조 당선

646표 차이로 이겨... 6개 단과대도 구성

제38대 총학생회 선거 결과 기호 1번 정성전 · 우영진 조가 총 53.73%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지난 22일부터 3일간 진행된 총학생회 선거에는 총 유권자 1만 2,801명 중 6,670명이 참여해 52.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중 기호 1번 정성전 · 우영진 조는 3,592표를 획득해 53.73%의 지지를, 기호 2번 유민지 · 구본훈 조는 2,946표를 획득해 44.07%의 지지를 받았다.

개표는 본관 중앙당에서 24일 자 정부터 시작됐으며, △예술대 △경영대 △사과대(야간강좌 포함) △생자대(이과대 생물학과 포함) △법대 △불교대 △문과대 △이과대 △사범대 △공대(생자대 식품공학과 포함) △정산대 순으로 진행됐다. 개표 초반에는 기호 2번이 앞섰지만, 이과대, 공대, 정산대의 전폭적인 지지로 기호 1번이 역전승을 거뒀다.

기호 2번은 문과대 개표 때까지 200여 표 정도 앞섰다. 그러나 이과대 투표자의 67.21%가 기호 1번을 지지하면서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37표까지 좁혀졌다. 이어 사범대 개표에서는 사범대 투표자의 69.17%가 기호 2번을 지지하면서 두 후보 간 득표 차이는 다시 318표로 벌어지면서 기호 2번이 선두를 유지했다. 승부는 공과대에서 가려졌다. 공과대 투표자의 82.98%가 기호 1번을 지지해 전세는 다시 정성전 · 우영진 후보쪽으로 기울었다.

이와 관련해 정성전 · 우영진 조는 37표까지 좁혀졌다. 이어 사범대 개표에서는 사범대 투표자의 69.17%가 기호 2번을 지지하면서 두 후보 간 득표 차이는 다시 318표로 벌어지면서 기호 2번이 선두를 유지했다. 승부는 공과대에서 가려졌다. 공과대 투표자의 82.98%가 기호 1번을 지지해 전세는 다시 정성전 · 우영진 후보쪽으로 기울었다.

교육여건혁신 포함한 마스터플랜 발표

비전선포식에서 공개... 2015년에는 100% 실현 가능

100년 전통의 역사를 기반으로 밝은 동국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한 15년 계획의 마스터플랜이 발표됐다. 지난 23일 6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된 비전선포식에서 공개된 것이다. 또한 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90여억원의 발전기금 약정이 성사됐다. 이번 마스터플랜 발표를 도화선으로 발전기금모금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인재육성을 위한 전략은 △특성화 △교육 · 연구 강화 △교육여건 혁신이다. ▲특성화전략 = 'ABC+α'를 나타낸다. Asia 특성화를 의미하는 'A'는 불교학, 인문학, 사회과학과 지역학을 융합한 학문 세계화 전략을 뜻하며, Bio의 'B'는 불교의 생명사상을 바탕으로 기술 · 공학을 융합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Culture의 'C'는 불교문화, 영화영상 등을 결합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신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도입해 전문가를 양성한다. 또한, 교수인력부담에서는 2010년까지 교수를 200명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며 능력 있는 교원을 특별 초빙하는 fellowship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 학교의 슬로건은 'Do Dream, Be the Newest'이다. 이는 백년 전통의 힘과 젊음으로 미래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슬로건과 함께 정립된 비전모토는 '깨달음에 정진하며 변화의 리더십을 창조하는 대학'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학교가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은 △자유롭게 상상하는 창조적 동국인 △넓고 도전하는 동국인 △도덕성,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동국인이다.

▲교육 · 연구 강화전략 = 교육 부문에서는 교양교육과 국제교육을 강화하고 기초과학, 실용적 공학교육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한다. 연구부문에서는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총무로의 영상단지 영상문화콘텐츠를 연계해 3대 연구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영상, 법학, 의학 분야의 전문대학원을

필동병원 부지에는 총무로 영상센터(아래 조감도2)가 세워진다. 해화문 주변에는 지하차도를 만들고 이는 동국관과 해화문 사이, 대운동장 지하에 건립될 주차장과 연결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팀의 한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이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면 늦어도 2015년에는 100% 실현 가능하다"며 "대부분의 공사가 민자유치로 진행되며, 내년 5월에 증축될 공학관 설립에 사용될 자금은 발전기금으로 총당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표1>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 결과 (오차로 인해 총 투표인원과 투표결과 총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총투표인원	투표결과			당선자	
		찬성	반대	무효	정	부
불교대	184표(73%)	150표(81%)	33표(17%)	4표(2%)	최성민(선학3)	한승우(불교3)
이과대	552표(64%)	347표(81.8%)	92표(17%)	6표(1%)	정하인(반도체2)	이기원(화학3)
경영대	756표(45.51%)	606표(80.16%)	140표(18.52%)	10표(1.32%)	박소혜(정보관리4)	
공과대	986표(54.7%)	789표(79.1%)	112표(11.2%)	96표(9.6%)	배성운(건축공2)	박한(전자2)
사범대	745표(69.69%)	620표(83.22%)	110표(14.76%)	5표(0.67%)	백이향(국교3)	
예술대	361표(58.4%)	286표(79.2%)	48표(13.8%)	24표(6.7%)	이혜림(영화영상4)	

중양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된 후 재검표 작업에 들어가려 했으나 기호 2번 유민지 · 구본훈 '해피컨설팅'의 명칭이 선거운동본부장이 "후보 간 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재검표를 한다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건의해 재검표 과정을 생략했다. 또한, 학생회 선거에서도 6개 단과대 모두 학생회가 건설됐다. 결과는 <표1>과 같다.

<해> iamjh713@dongguk.edu

정시모집 요강 확정 19일부터 접수 시작

2006학년도 정시모집 접수가 다음달 24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전 12시까지 인터넷(www.dongguk.edu, www.uway.com)을 통해 실시된다. 이번 정시모집은 지난해와 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표준점수를 반영하지만, 탐구영역 반영방법과 자연계열 수리 '가' 형 응시자의 가중치는 변경됐다.

전형방법은 △가군=일반전형과 농어촌 · 특수교육 · 실업계 특별전형 전 모집단위를 수능 성적 100%로 선발 △나군=일반전형 수능 성적을 비롯해서 학생부 성적과 논술 고사 성적 등을 종합 평가해 선발한다. 가 · 나군 모집인원은 1,816명이다. 이번 해부터 우리학교는 탐구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 시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탐구영역 성적을 표준점수 기준으로 반영한다. 수리 '가' 형에 응시한 공과대 지원자에게는 수리 '가' 형 성적이 5%가 중치를 부여하고, 수리 '가' 형을 응시한 정보산업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산림자원학과, 식품공학과, 가정교육과 지원자에게는 수리 '가' 형 성적에 3%가중치를 부여한다.



▲ 산학협력 · 공학관과 기숙사 ▲ 총무로 영상센터

일본 학부부터 연구봉토 조성 중국 학구적인 대학문화

▲일본 = 일본대학은 학문연구 체계가 한국보다 전문화돼 있다. 일본대학의 학부과정은 우리나라의 '학부+대학원'을 합쳐 놓은 것으로 보면 된다. 일본대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대학원생처럼 지도교수가 정해진다. 보통 1명의 교수에게 7명 정도의 학생이 배정돼 한 교수의 연구실에 3학년과 4학년인 학부생들과 석사 · 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들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Keio대에서 유학한 정병훈(전기공학) 교수는 "연구실에서 체계적으로 생활하다보니 학생들이 학부과정부터 학문에 몰두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며 "학문 연구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쉽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좁고 깊은' 일본 학문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본 대학생들은 한국 대학생보다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적게 받는다. 일본기업은 대학시절에 자기희생을 필요로 하는 단체활동 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구주대에서 유학한 황재현(생명산업자원유통학) 교수는 "일본사회는 리더십과 조직사회 적응력 그리고 선후배관계 등을 중요하게 보는 편이다"고 말했다.

▲중국 = 중국대학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별 서열화 현상이 강하지 않다. 중국은 어떠한 전공을 어느 교수한테 배웠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중국 교육은 열악한 연구환경으로 경쟁이 심화돼 연구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 여러 권의 책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중국 교통대에서 유학한 김환철(교육대학원 석사 3학기) 학생은

"사회주의 국가의 분위기 때문인지 중국학생들은 비판의식이 떨어지는 편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대학생들은 우리나라 대학생과 달리 외모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부분 옷, 외모 등도 사람을 평가하는 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대학생들은 학생의 신분으로 대학을 다니는 것이므로 사람을 평가할 때는 문화적 소양 등을 평가 기준으로 잡는다. 이와 관련해 김환기 학생은 "이전에 중국친구가 한국대학을 보고, 연예인들만 있는 줄 착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대학은 우리나라 교육과 크게 다른 점은 없으며 토플 등 영어공부에 대한 열의는 한국과 비슷한 편이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칭찬합시다

우리 신문은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내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칭찬합시다'를 기획 연재한다.

⑩ 도전하는 젊은이 박기혁(생명화학공3)



지난 5월 모든 산악인의 꿈인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박영석 동문은 "1%의 가능성만 있다면 도전하라"고 말했다. 이러한 도전 정신을 본받아 항상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꿈꾸는 젊은이가 있다. 여행 자금 마련에서부터 숙소를 정하고 일정을 짜는 일까지 홀로 해낸 박기혁(생명화학공3)군을 만나 그의 도전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의 여행은 항상 설렘으로 가득 하죠." 한 학기 동안 아르바이트로 여행경비를 마련하면서도 전혀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박군. 이는 여행이 가져다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그는 2001년 2월 한 달 간 홀로 뉴질랜드로 여행을 다녀왔다. "크라이스트처치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흥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여행의 묘미 때문에 그는 가이드가 동반된 패키지여행보다 자유 배낭여행을 고집한다. 그는 이 외에도 미국여행, 경주에서 광주까지의 도보여행 등을 다녀오기도 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거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충격을 받는 등 당혹스러운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움츠러들기보다는 말이 안 되면 몸으로 즉, 바디랭귀지를 사용해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었고, 몇몇의 친구들과는 여행 후까지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 "제 생활신조는 잠조차림 살자예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자신이 아직 겪어보지 않은 세계에 도전하는 삶을 즐긴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유학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박군. 새로운 세계를 향한 그의 프로포즈는 이제 시작이다. <미> eunmi@dongguk.edu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100주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



동국구성원이 모두 함께 할때 즐겁습니다

동대신문사

BK21 2단계 사업 준비작업 활발

대학원 육성 위한 절호의 기회 ... 보다 적극적인 참여 필요

지금 대학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BK(Brain Korea: 두뇌한국)21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물밑 작업에 한창이다. 1999년에 처음 시작된 BK21 사업은 국가 연구력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대학원 육성을 통한 연구력 증진을 위해 교육부가 기획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2단계 BK21 사업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우리학교는 1단계 BK21 사업 인문사회계열에서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이 대형과제로 선정됐다.

또한, 인문사회계열에서 1개 과제가, 이공계열에서 4개 과제가 소형과제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공계열의 소형과제는 규모 자체가 작고 사업기간도 3년에 그쳐 산학협력

유치가 힘든 상황이다. 2단계 BK21 사업이 기존 사업과 다른 점은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사업단 선정 시 기업과의 공동연구, 산학협력 활성화 정도를 반영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1단계 BK21 사업이 대학(원) 중심 연구에 치우쳐 있어 산학협력, 실용기술 개발과 거리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또한, 2단계 BK21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57.5%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대학 관계자들은 특성화 분야의 전임교원 확보율만을 따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BK21 사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많은 대학들이 BK21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준비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 지원으로 대학원을 집중육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BK21 사업에 선정되면 연구지원금, 대학원생의 등록금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대학원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반대로 BK21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번 2단계 BK21 사업은 산학연구와의 연계성을 높여 평가한다는 점에서 대학원생들이 취업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BK21 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대학원생들의 대학별 지원율이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학교는 내부적으로 150여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단계 BK21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

으며 교육부가 사업 확정안을 발표하면 공청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학교는 1단계와 비교해 2단계 BK21 사업에 활발한 참여를 보이고 있으며 불교학과뿐만 아니라 북한학, 국문학, 사회학 및 학문 분야에서도 2단계 BK21 사업을 준비 중이다.

또한, 지난 7월 '2단계 BK21 사업 준비 위원회'를 구성해 예비 사업단을 선정하여 필요조건을 충족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가능한 다양한 학과가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대형 BK사업단으로 선정된 사업단은 우리학교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지원, 육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대학원 총학생회 김동주·김현선 당선

회전무대

일반대학원 제22대 총학생회 선거 결과 김동주(정치학과 석사 2학기)·김현선(연극영화학과 석사 2학기) 조가 92.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단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지난 2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었고, 개표는 25일 오후 9시부터 학술관 제1세미나실에서 실시됐다.

대학원 총 유권자 1,231명중 159

명이 투표에 참여해 12.9%의 낮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김동주·김현선 조가 찬성 147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동주·김현선 조는 △학생 자기기구조서의 위상 확립 △원우들과 대화채널 확보 △ 학술관 무선인터넷 시설 완비 △이공계 학우들을 위한 기획강좌 개설 △등록금 인상률에 맞는 교비 책정 추진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만남의 벽

○...우리학교 외국인 학생과 한국학생들 간에는 소통의 장이 없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교환학생으로 우리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학생들의 교류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서로의 문화를 배우거나 공유할 기회가 없는 것이라고.

외국인 도우미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외국인 학생들이 타지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너와 나 사이를 가르는 건 언어가 아닌 제도(!)"

불청객

○...우리학교 중앙도서관 전시실은 이삿짐 센터를 방불케 한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외부에서 기증한 도서들을 정리할 인력과 공간이 없어 중도 전시실에 도서가 쌓여있는 것이라고.

전시실이 부족한 만큼 장서 정리 인력을 충원해 중도 전시실이 본래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중도 전시실의 새로운 전시물은 박스 포장 기증도서(!)"

어둠 속 미로

○...우리학교 학생들은 학립관 소강당을 찾을 때 눈뜬 잠금이 된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학립관 소강당 입구에 조명이 설치돼 있지 않아 공연을 보러가는 학생들이 출입문 찾기가 힘든 것이라고.

소강당에서 학내공연과 외부공연 등이 많이 열리고 이용률이 높은 만큼 소강당 입구에 조명을 설치해 환경개선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동국아, 엄마는 떡을 썰 테니 년 공연장을 찾아라(!)"

처음 모습 그대로

○...우리학교 만해광장은 허물을 벗는다는데. 무슨말이고 하니 만해광장 농구코트 우레탄 곳곳이 손상돼 있어 학생들이 그 곳에서 농구를 하다가 부상을 입기 쉬운 것이라고.

만해광장은 학생들이 농구를 하거나 체육행사를 진행할 때 자주 이용하는 곳이니만큼 신속히 보수공사를 해야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만해광장의 변신은 유죄(!)"

장충단길 도로확장공사 완공

다음달 5일 장충단길 도로확장공사가 완공된다. 이에 개통식이 오는 5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동대입구 6번 출구 장충단공원 매점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개통식에는 홍기삼(국어국문학) 총장, 이명박 서울시장, 성낙합 중구청장 및 각계각층 인사 수십명과 중구민이 참석한다. 확장된 구간은

장충체육관 앞 로타리부터 남산제2호터널 입구 삼거리까지이다.

이번 장충단길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우리학교 진입로가 직선화돼 앞으로 통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문 진입로 주변의 불법주차 문제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 한 포기' ... 생활협동조합과 참사랑 봉사단, 동지회가 참가한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가 지난 26일 오전 상록문 2층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조합원과 학생 등 30여명이 참가해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lee123@dongguk.edu

만해관 보관함 신청 1일

만해관 보관함 사용신청 접수가 다음달 1일 오전 6시 30분부터 중앙도서관 반납창구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만해관 1층의 보관함 300개이다.

재학생만 신청 가능하던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학부 졸업생과 대학원 수료생도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당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 기존 사용자와 신규 사용자의 보관함 교환이 있을 예정이고 신규 사용자들은 다음달 2월 28일까지 세 달 동안 만해관 보관함을 사용할 수 있다.

한겨레 광고대상 수상

우리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광고가 한겨레 광고대상 대학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제8회 한겨레 광고대상' 시상식은 지난 2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학교에서는 광대경(경찰행정학) 홍보실장이 참석해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대학부문 광고대상을 수상한 건학 100주년 기념 광고는 1906년 개교 이래 많은 선각자와 인재들을 길러낸 우리학교의 역사

와 전통, 그리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38대 총학생회 당선자 인터뷰

“학생들과 함께 하는 총학생회 만들 것”

총학생회 당선자 정 정성전(경영3), 부 우영진(기계공4)

- 당선 소감은.
= 그동안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마쳤을 때 뿌듯했다. 하지만 개표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다. 새벽 2시 50분경 당선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너무 좋았다. 예상보다 훨씬 큰 격차로 당선 돼서 더욱 기쁘다.

- 앞으로 활동 계획은.
= 원래 임기는 오는 1월 1일부터지만 이전 37대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 하루 빨리 활동을 시작하

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선 무엇보다 총학생회 집행부 구성에 힘쓰겠다. 학생회 활동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총학생회 집행부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조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 물론 총학생회장 선거 출마 준비를 함께 한 운동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겠지만 총학생회 활동을 할 의향이 있고 생각이 같은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등록금 협상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 우선 학생들의 의견을 취할 것이다. 그런 다음 공약사항에서 밝혔듯이 원탁데이블을 통해 학교와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겠다. 원탁데이블은 등록금 협상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에 전달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2005학년도 2학기 학생강의평가 시행 안내

- 취지
강의평가는 강의에 대한 학생의견을 수렴하여 강의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담당교수에 알려드리고, 교육업적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05. 11. 28(월) ~ 12. 31(토)
- 대 상 : 2005학년도 2학기 전체 개설강좌
- 응답자격 : 2005학년도 2학기 재학생 전체
- 기타
가. 학생의 응답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나 본인의 수강하는 전체 강좌에 대하여 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설문 응답을 제고를 위하여 수강강좌의 모든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은 인터넷 및 본 교 전산망에서 성적결과를 조회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2005학년도 2학기 성적처리 일정 안내

- 성적공시 및 정정 기한
2005. 12. 26(월) - 30(금) 17시까지
- 성적 공시 : 12. 26(목) ~
* 12. 19(월) - 23(금)까지 입력 처리된 성적에 한하여 공시되며, 이후 입력된 성적은 담당교수별 저장처리 후 바로 공시됨.
- 성적 정정 :
(1)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교수에게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정정 가능 기간은 교·감사별로 사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2) 성적공시 및 정정기한 이후의 성적정정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내에 확인 및 정정하여야 함.
- 성적표 E-mail 성적 발송 : 2006. 1. 10(화)예정
- 성적표 발송 : 1. 13(금) 예정

* E-mail 등록 및 주소 확인 : 본교 홈페이지 [학사행정](#) - 주소지변경에서 E-mail 등록 및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E-mail을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개인성적을 발송함.)

교 무 처

2005학년도 전기 졸업연기신청 안내

2005학년도 전기 졸업연기신청 일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가. 2005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2006년 2월 17일 졸업예정자)로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편입인정학기 포함)
- 자격요건
가. 졸업논문을 포함하여 제1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나. 복수전공 최저이수학점의 1/2이상을 취득하고 2개 학기 내에 복수전공(혹은 교직 부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
- 접수기간 : 2005. 11. 30(수) - 12. 2(금)
- 신청서 : 홈페이지/ 학사행정/ 양식함/ 졸업연기신청서 다운로드후 사용
- 접수장소 : 소속대학 행정지원실
- 유의사항
가. 졸업연기자의 학적은 재학상태로 됩니다.
나. 2004학년도 후기에 졸업연기를 신청한 후 추가로 1학기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연기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성적처리 완료후 졸업연기 신청 자격을 심사하여 부적격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라. 졸업연기는 2개 학기까지 가능합니다.

교 무 처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 접수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 대상자 :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대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자 격
가. 학적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나. 사범대학생 : 교직과목 22학점, 전공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을 이수한 자.
다.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2) 교직과목 2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을 이수한 자료, 교직과목 및 전체 전공과목의 평균 성적이 각각 80점이상인 자.
- 접수기간 : 2005. 12. 12(월) ~ 12. 16(금)
-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 교부 및 접수처
가. 사범대학생 : 소속 학과 사무실
나.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사범대학 행정지원실 *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교직원내 게시판에서 출력 가능함.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대상자는 유의하기 바랍니다.

사 범 대



38대 총학생회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38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기호 1번 정성진·우영진 조가 당선됐다. 지난 1년만 동안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이번 선거에 대한 학내구성원들의 관심은 무척 높았다. 그러나 이번 38대 총학생회 선거는 구성원들의 기대만큼 훌륭하게 치러지지 못했다. 이에 우리 신문에서는 이번 총학생회 선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선거평가 기획을 준비했다. 편집자

학교 선거개입 의혹 · 중선위 중립성 논란 속 선거

학교 중선위 자율성 보장 필요 ... 중선위 전문성 강화돼야

제38대 총학생회 선거가 기호 1번 정성진·우영진 조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경선으로 치러진 선거인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열띤 선거운동이 진행됐다.

하지만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학교홈페이지 나의 주장 게시판은 각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글로 도배되고,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는 등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선거에서는 중선위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먼저 선거 벽보 규격화와 같은 기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두 후보의 벽보가 각기 다른 규격으로 제작돼 선거운동에 이용됐다.

중선위는 투표 전에 유호 표토 인정할 수 있는 지정 도장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아 개표 직전에 지정 도장의 조건을 다시 발표하는 등의 미숙함을 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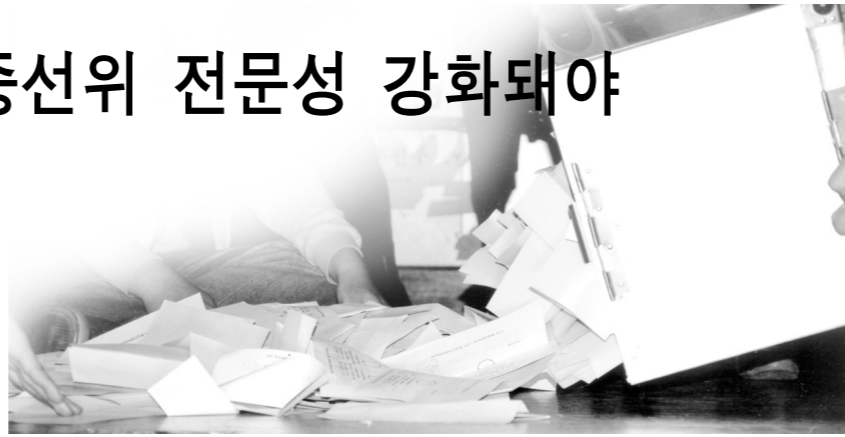
공식적인 선거 관련 행사 준비와 홍보도 미흡했다. 선거 유세기간 중 공동 정책토론회(15일)와 합동유세(16일)가 열렸으나,

정책토론회 사회자를 토론회 바로 전날 섭외 하는 등 준비가 부족했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정책토론회와 합동유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선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참여하지 못한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슈는 학교의 선거개입 의혹 이었다. 지난 21일 중선위는 '학교는 선거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그와 함께 중선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회과학대 5개 학과 학생회장들이 이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학교 측에 선거에 개입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중선위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 학생처장은 '지금 중선위가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선위의 공정성에 대한 학교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파문은 중선위 내부의 분란으로 이어졌다. 22일에 최우영(식품2), 윤도경(화학1) 전 중선위위원이 중선위에 사



퇴서를 내고 중선위의 공정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교내에 부착했다.

중선위 위원장 사퇴에 관해 윤도경 전 중선위 위원은 "기호 1번 리플렛과 관련한 중선위의 결정은 공정성을 잃은 기호 2번 측에 우호적인 판단이었다"며 "중선위 위원으로서 공정하게 활동을 하기 어려워 사퇴한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권경훈 중선위 부위원장(선학 4·위원장 권한 대행)은 "리플렛 철회는 기호 1번 측도 동의했고, 당시 리플렛 철회에 관해 논의할 때 사퇴의사를 밝힌 전 중선위 위원이 있었지만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중선위는

중립적 입장을 지키고 있으며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총학생회 선거는 학생대표기구의 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중선위는 선거전부터 철저한 준비와 논의를 거쳐 선거를 준비하고, 학내 구성원들도 성숙한 선거의식을 가져 선거가 건전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학교 또한 학생자치기구를 선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다 자율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이것이 공정하고 올바른 학생회 선거를 치르는 지름길일 것이다.

<혜>
iamj713@dongguk.edu

사설

지도인가 개입인가

지난 25일 총학생회장 선거결과가 나왔다. 10여 년 만에 비운동권 후보측에서 승리를 만끽했다. 이번 선거는 총학생회가 구성됐다는 점에서 큰 축하를 받아야 한다.

1년 반 동안 학생회 부재로 인한 불편함을 알기에,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 하지만 선거가 성사되기까지 많은 우려와 절망을 빚어 끌려온 기분을 숨길 수 없다.

한편 학교측이 중선위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학생회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내 구성원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입장표명을 했다.

학생처는 올바르지 못한 선거를 묵과할 수 없어 '학생지도'에 나섰다. 중선위는 "학교측이 학생회 선거에 압력을 행사한 점을 참을 수 없다"며 대표자 사퇴로 대응했다. 이 밖에도 중선위를 지지하는 대학원 총학생회와 사회과학대의 5개학과, 학생처와 같은 입장을 펴는 2명의 선관위원들의 중선위 도장을 수 많은 성명서들이 동약에 난무했다.

논란은 기호 1번 선본 관계자와 진본 있는 학생이 평소 선후배로 지내던 학생복지실의 한 과장을 찾아가면서 시작됐다. 그 직원은 후배 말을 듣고 중선위의 중립성에 문제를 느껴 중선위장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명목은 학생지도였다.

총장대리로 학생회담당 업무를 맡았다는 직원이 중선위장에게 면담을 요구한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선거를 학생들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지 못하고, 학생회담당 직원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 직원의 학생지도에 대한 애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선거유세까 막 시작했을 무렵, 어느 학생이 우리학교 홈페이지 '나의 주장'에 기호 1번을 빗대어 "학교에서 이번에는 만만치 않은 애들을 묶어낸 듯 싶소"라는 글을 써 학교에 불려간 일도 있다. 물론 이 학생도 근거없이 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지도를 받았다.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관심을 갖고 '지도'하려는 그 직원의 정성은 감격스럽다. 하지만 건학 100주년을 앞둔 동국대학교는 고등학교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다.

물론 대학생이 사회인보다 미숙한 것은 사실이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학생을 어른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지만, 법적인 성인을 단지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보호하기에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있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말에 책임질 줄 알고, 판단도 할 수 있다.

우리학교 선배인 직원이 애정을 가지고 후배들의 잘못된 점을 고쳐주고 싶고, 관심이 가는 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학생에게 이러한 무조건적인 지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다.

대학은 고등학교와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대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의 자율성과 자치문화가 보장된 곳이며, 대학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

'학생은 지도대상'이라는 학교측의 주장은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학교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대학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옹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우리선본 또한 '학생지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 학생지도가 필요하지 않은 제38대 총학생회가 건립돼야 한다.

학교 선거 개입 의혹 집중취재

학교 "올바르게 진행하지 못 해 면담요청" 중선위 "중선위 판단에 이의 제기는 개입"

지난 제38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학교 측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신두경·정통3, 이하 중선위)가 '학교 측이 학생회선거에 개입했다', '중선위가 중립적이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큰 논란을 빚었다.

지난 17일 목요일, 기호 1번 정성진·우영진 선거운동본부(본부장=최정우·기계3, 이하 선본)가 한총련 학생이 방패를 든 전투경찰을 축장으로 찌르는 장면이 담긴 유인물의 허가신청을 중선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중선위는 다음날인 18일 오전 1시 30분에 △한총련인 2번 후보를 비방 △학교의 대외적 이미지 실

추라는 점으로 이러한 사진을 삭제하면 승인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신두경 중선위장은 "기호 1번측도 이러한 이유를 인정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에 기호 1번 최정우 선본부장은 "처음에 유인물에 대해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지만 중선위장과 이야기후 철회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후 중선위는 오전 11시에 유인물 승인건으로 내부 회의를 진행해 선정적이란 이유로 이전과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각 위원들의 반대 의견 없이 전원 동의로 회의를 마쳤다.

이날 교직원들이 퇴근한 오후 6시, 학생복지실 한 직원이 중선위장에게 전화해 면담을 요구했다. 면담에서 그 직원은 중선위장에게 1번 선본 측 유인물 미승인건의 이유를 물었다. 중선위장은 중선위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그 직원은 기호 2번 선본(본부장=명창희·정통3)에서 만들었던 유인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그 직원은 "기호 2번의 '필동병원 매입관련 총장 비리의혹 검찰 수사' 관련 유인물은 학교가 마치 매입의혹이 있는 것처럼 근거없는 비방을 했다"며 "그러한 유인물은 승인하고 기호

1번의 유인물은 왜 안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선위장은 "면담과정에서 녹음기를 들이대면서 이유를 대답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그 직원은 "학교 비품으로 없는 녹음기를 어디서 준비했느냐"며 "집에 미리 준비해 가져왔겠다"고 말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이후 21일 월요일 중선위장은 '학교 측이 학생회선거에 개입'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이고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그 직원은 "학생지도도 담당하는 교직원 이므로 중선위장을 부른 것만으로 학교가 개입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선위장은 "이전에도 투표소 설치, 공간 대여 등 선거관련 업무로 몇 차례 찾았을 때는 큰 문제 없었다"며 하지만 "금요일 면담은 총학생회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의 대표를 불러 중선위 판단에 불만을 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황우상 기자
hjs228@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겸 주간: 윤재웅
부주간: 김세곤
편집장: 황우상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성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100th Anniversary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100년은 프리미엄이다!

100년간 치유받은 무성한 학문의 숲을 나의 것으로!
100년간 맺어온 수많은 동문과 애력을 나의 것으로!
100년간 쌓아온 든든한 콘텐츠 위에서 출발하세요.

2006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www.dongguk.edu

대학원명	원서접수기간	전형일	홈페이지주소	문의처
언론정보대학원	2005. 11.21(월)~12. 1(목)	2005. 12. 3(토)	http://graduate.dongguk.edu/ci/	(02)2260-3723,3733
산업대학원	2005. 11.16(수)~12. 1(목)	2005. 12. 3(토)	http://gsite.dongguk.ac.kr	(02)2260-3861,3602~3
국제정보대학원	2005. 11.23(수)~12. 8(목)	2005. 12.10(토)	http://iai.dongguk.ac.kr/iai	(02)2260-3723,3733

건학 100주년 기념

교사(校史) 자료수집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명진학교, 중앙불전, 해화전문, 동국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발굴, 수집, 전시함으로써 본교 100년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동국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일류동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수집기간 2006년 2월 28일까지(3차)

수집장소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시실

수집내용

- ▶ **건학관련자료**(1906년 전후 사진자료, 문헌자료)
 - 인물관련: 이보갑, 김월해, 김우은, 박보복, 김석우, 홍원초, 김보은, 김포용, 김현안, 한용운, 진진용, 박현영, 오성철 등 건학 및 학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
 - 사물관련: 명진학교에서 불교고등강수 시기(중앙 및 지방학림) 원흥사(서울), 봉은사(경주), 봉선사(양주), 응주사(수원), 마곡사(경주), 속리사(보은), 송광사(순천), 금산사(금구), 해인사(합천), 통도사(양산), 동화사(대구), 월정사(평창), 우정사(고성), 석왕사(안변), 구주사(함흥), 보현사(영변), 신광사(해주), 대승사(문경), 남장사(성주), 용문사(예천), 명봉사(통기), 광흥사(인동), 화엄사(구례), 송광사(순천), 대원사(산청), 쌍계사(하동), 화장사(장단), 전등사(강화), 법주사(보은), 위봉사(전주), 보석사(금산), 백양사(장성), 선암사(성주), 대흥사(해남), 김룡사(문경), 동화사(달성), 기림사(경주), 범어사(동래), 건봉사(간성), 패암사(산청), 성불사(황주), 영명사(평양), 법흥사(순안), 고운사(의성), 은해사(영천), 천은사(구례), 태안사(곡성), 관음사(곡성)
 - 각종문서: 결의문, 취지문, 신청서, 허가증, 인장(印章), 교훈(校訓) 등
- ▶ **문헌자료**
 - 도서 및 간행물: 교재, 각 기관에서 발행한 도서 및 간행물
 - 문서, 문건: 공문서, 업무일지, 회의록, 대자보, 학생활동문건 등
 - 각종 증서류: 학위증, 임용증, 학생증, 성적증명서, 강의시간표, 교직원신분증 등
 - 인쇄 및 홍보물: 다이어리, 달력, 카드, 팸플릿, 포스터, 강의노트, 성적기록표 등
- ▶ **기념품**: 교표, 교기, 우승컵, 우승기, 상패, 각종 행사기념품
- ▶ **복식자료**: 교복, 교모, 체육복, 교련복, 학군단복, 실습복, 행사 티셔츠 등
- ▶ **사진자료**: 학교전경, 수업장면, 앨범, 슬라이드, 필름 등
- ▶ **동문 및 교직원 기념자료**: 휘호, 서예, 유품 등
- ▶ **집기 및 비품자료**: 각종 인장, 헌판 등
- ▶ **건학 및 교사자료와 관계있는 사람들의 연락처**

문의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 「東國百年展」 중앙도서관 전시실
Tel: (02)2260-8639~40, 8622
Fax: (02)2260-3450
E-mail: dgulib100@dongguk.edu

* 자료는 기증자(또는 출판인)가 직접 우편으로 송부하거나(착불), 혹은 소장하고 있는 정소를 통지해 주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 사업회



'무너지는 생존권' 농민은 비통하다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비준동의안'의 통과여부가 결정될 국회본회의가 열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아침 일찍부터 만약에 발생할 물리적 충돌을 대비해 진영을 꾸리기 시작한 경찰들로 살벌한 분위기가 되었다.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이 소란스러워졌다. 국회로 들어가려는 시민, 혹은 기자들과 이를 막는 경찰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오늘은 국회 출입증이 없으면 못들어간다"고 완강히 막아서는 경찰들. 민주노동당이 10시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기자회견'을 개최하지만 이 날만은 기자 중에도 국회출입기자만 들어갈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당당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일까. 혹시나 출입증 없는 '일반인'이 들어갈지 몰라 차량점검까지 꼼꼼히 하는 모습이었다. 그 옆에서 '쌀비준 반대' 팻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하는 농민의 모습이 씩씩하기만 했다.

오전 10시. 국회 정문 너머 계단에서 민주노동당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속의원, 비대위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준안 처리를 막겠다"고 다짐한 뒤 국회로 들어갔다.

한 시간 뒤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농민회 총연맹과 쌀 비대위, 전국민중연대의 '쌀협상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전국민중연대 전광훈 상임대표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쌀 비준안을 강행하려한다면 국회와 정부 껍데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

였다. 이들은 모두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농민들과 국민들의 분노를 적시하고 쌀협상 비준 이전에 먼저 농업과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며 주장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이 기자회견이 끝나자 주변에 대기해 있던 경찰들이 본격적으로 진압을 갖추기 시작했다.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민주당과 민중연대, 쌀 비대위의 결의대회가 계획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열린 농민대회에서 경찰과 농민간의 충돌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서인지, 경찰은 각 지방에서부터 농민의 상경 자체를 막아 투쟁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 날 결의대회도 서울 인근 수도권에 있는 각 시민단체들과 대학생들만의 소규모 참가가 예상됐다. 하지만 경찰은 보다 단단히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오후 2시, 결의대회가 시작됐다. 약 200명가량의 소수만이 참여해 "12월 중순에 열릴 WTO 협상 이후로 비준안 통과를 미뤄라" "식량주권만을 뺏기면 안된다" 등을 목이 터져도 외쳤다. 그러나 이들의 외침은 국회 정문 앞 넓은 도로에 쓸쓸히 울려 퍼질 뿐이었다.

그 시간, 길 건너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개최되려 하는 중이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쌀 비준안 처리 안건을 가장 처음으로 올려놓은 채,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있었다.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웃지못할 일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곧 본회의장 진입과 의장석 점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나 2시 40분 즈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의장석에서 끌어내리는 등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3시 10분을 전후해 쌀협상 비준안 찬반표결이 실시됐다. 그리고 채 5분도 안돼, 총 223명 중 찬성 139 △반대 61 △기권 23으로 비준안이 통과됐다.

결의대회장에 곧 이 소식이 들려오자 대회 참가자들은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곧 쌀협상 국회비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순간부터 노무현 정권 타도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수입쌀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없도록 죽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회에 참가한 항공대 강동기 총학생회장은 "이 사실을 학교로 돌아와 학생들에게 알리고 다음달 1일 열린 전국농민대회때 함께 연대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준안 통과 후 대열은 국회 모형을 태우는 상징의식을 행한 뒤 국회 진입을 시도 했지만 경찰에 막혀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농민가를 부르며 다음을 기약했다. 이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렸다. 그 눈물만이 대한민국 350만 농민들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었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쌀 비준안의 주요 쟁점

쌀 · 과일 · 닭고기까지 수입

쌀 비준안 국회통과에 따라 농민이 분노하고 있다. 많은 농민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쌀협상 비준안은 과연 무엇일까.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비준동의안'의 핵심은 말 그대로 쌀 관세화 유예를 앞으로 10년간 더 연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 유예를 연장하는 대신 올해 4%(20만 5천톤)의 의무수입물량을 2014년에는 기준연도(88~90년)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40만 8천700톤)까지 늘리는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허용하고,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

상 결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2005년 이후 쌀 시장의 개방 여부는 2004년 중 쌀 수출국과 협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국인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등 9개국과 협상을 벌여 2005년부터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찬성하는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국제신인도 문제와 쌀 의무 도입량을 이행하는 데 최소한 40일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비준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비준

안 처리에 앞서 근본적인 농업협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음달 18일 열리는 WTO 홍콩 각료회의가 끝난 후 비준안 처리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한다면 오히려 쌀 관세화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결국 비준안이 통과해 당장 내년부터 밥쌀용 수입쌀의 시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의무수입물량 22만톤은 내년 상반기에, 내년 수입물량 24만톤은 하반기에 나눠 들여오기로 결정했다. 더욱이 2004년 쌀 협상 당시 중국·아르헨티나·캐나다 등과 맺었던 부가합의까지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됐다.

부가합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국=사과·배 등 △아르헨티나=닭고기·오렌지 등에 대한 수입허용평가가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절차는 수입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와는 관세율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농업 전반이 매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동약로

찾은 휴강



"e-club이 곧 폐쇄된다. 자료들이 없 어지기 전에 다운받아 놓아야 해."

"서비스 중단 풀린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폐쇄야?"

우리학교 홈페이지 e-class와 e-club이 잦은 시스템 장애와 중단으로 이를 이용하는 학생과 교수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달 전, 웹 시스템 장애로 인한 e-class 일시중단에 이어 이번에는 e-club이 잠정적 중단을 발표한 것이다.

e-club의 경우, 각 클럽에 업로드 돼 있는 파일들은 이번 중단으로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e-club을 이용하던 학생 및 교수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특히 수업을 위해 e-club을 사용했던 경우에는 e-class에 대체 커뮤니티를 열었지만 학생들은 그동안의 수업자료 및 과제물들을 개인적으로 다운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한편 정보관리실은 이에 대해 본래 e-club의 용도가 친목을 위한 커뮤니티 제공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의 커뮤니티로 e-club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용하는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은 다르다. 오히려 e-club이 강의 커뮤니티로 활용하기에 유용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애초에 e-class는 수업자료 공지·과제물 제출·팀 프로젝트 등 강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로, e-club은 학생들의 친목 도모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학내 구성원들은 e-class와 e-club의 개설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e-club에서는 학생들의 친목 커뮤니티보다 몇몇 강의 커뮤니티가 훨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무엇보다 e-class와 e-club의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몇 년간 서버 중단에 복구를 반복해 온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앞으로 e-class와 e-club 등 새로운 학내 사이버공간을 구축할 때에는 확실하고 안정적인 서버 확보와 각 커뮤니티의 용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

niitake@dongguk.edu

2005년 총무아트홀 스포츠센터 겨울 방학 특강 프로그램

1. 강습 기간 : 2005년 1월 4일부터 ~ 2월 28일까지
2. 강수 기간 : 2005년 12월 23일부터 (연휴는 미산)
3. 강수 장소 : 최 최관 캠퍼스 1층(체육관)
4. 강사 : 최 최관, 최 최관
5. 프로그램

구분	강명	강사	강시	강료	비고
초급	태권도	최 최관	11:00~12:00	120,000원	12월 23일
	태권도	최 최관	12:00~13:00	120,000원	12월 23일
	태권도	최 최관	13:00~14:00	120,000원	12월 23일
	태권도	최 최관	14:00~15:00	120,000원	12월 23일
	태권도	최 최관	15:00~16:00	120,000원	12월 23일
	태권도	최 최관	16:00~17:00	120,000원	12월 23일
	태권도	최 최관	17:00~18:00	120,000원	12월 23일
	태권도	최 최관	18:00~19:00	120,000원	12월 23일
	태권도	최 최관	19:00~20:00	120,000원	12월 23일
	태권도	최 최관	20:00~21:00	120,000원	12월 23일
중급	태권도	최 최관	11:00~12:00	150,000원	12월 23일
	태권도	최 최관	12:00~13:00	150,000원	12월 23일
	태권도	최 최관	13:00~14:00	150,000원	12월 23일
	태권도	최 최관	14:00~15:00	150,000원	12월 23일
	태권도	최 최관	15:00~16:00	150,000원	12월 23일
	태권도	최 최관	16:00~17:00	150,000원	12월 23일
	태권도	최 최관	17:00~18:00	150,000원	12월 23일
	태권도	최 최관	18:00~19:00	150,000원	12월 23일
	태권도	최 최관	19:00~20:00	150,000원	12월 23일
	태권도	최 최관	20:00~21:00	150,000원	12월 23일

총무아트홀 스포츠센터 이용안내

총무아트홀 스포츠센터 이용안내

문의처 : 02-2250-6707

구분	강수	대상(연령 14인 이상)	비고
체육관	120,000원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체육관	150,000원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체육관	150,000원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체육관	150,000원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창에 '총무아트홀 스포츠센터'를 치세요.

Information

프로그램 및 의견접수 안내

총무아트홀 스포츠센터

총무아트홀 스포츠센터는 2005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겨울 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프로그램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강사로는 최 최관, 최 최관 등이 있습니다. 수강료는 120,000원부터 150,000원까지입니다. 문의처는 02-2250-6707입니다.

문의처 : 02-2250-6707

구분	강수	대상(연령 14인 이상)	비고
체육관	120,000원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체육관	150,000원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체육관	150,000원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체육관	150,000원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창에 '총무아트홀 스포츠센터'를 치세요.

프로그램 및 의견접수 안내

건강과 즐거움이 머무는 곳

총무아트홀 스포츠센터

총무아트홀 스포츠센터는 2005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겨울 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프로그램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강사로는 최 최관, 최 최관 등이 있습니다. 수강료는 120,000원부터 150,000원까지입니다. 문의처는 02-2250-6707입니다.

문의처 : 02-2250-6707

총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동대대학교 운영본부
http://sports.cmah.or.kr



왼쪽부터 인문과학부 장원 박기범(사학4), 가작 박대성(국문4), 사회과학부 장원 남지윤(정외3), 가작 문근영(정외3), 자연과학부 장원 민경현(컴공4), 가작 김규동·안수훈·김희진(식품공 4).

인문과학부문

참신한 시각과 도전정신 칭찬

아마추어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누가 뭐라 해도 시각의 참신성과 기존의 논리에 대한 과감한 도전정신일 것이다. 먼저 장원작 '백제 부채제 연구'는 기초사료에 대한 뛰어난 독해력과 기존의 연구성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충실한 소화력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연구자 나름대로 기존의 사료와 덧붙여서 고고학적 연구성과도 참조하고 있는 바, 이는 학생논문 볼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기존의 문헌자료의 한계점을 극복해 보려는 것으로 이 글의 논지전개에서 돋보이는 부분이다. 한 가지 지적해 볼 점은 기존 학계의 일부에서 사용하는 용어, 예를 들면 '체제' 등과 같은 용어가 그 내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한 면도 간과할 수 없다. 가작인 '금기의 선택적 수용'은 서사가 지닌 집요한 반복의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기의 설정이나 위반 모두 인간 욕망이 낳은 결과라는 점을 논의의 축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발판으로 신화, 전설, 영화가 시대를 달리하는 서사들이지만 금기 모티브의 수용에 인색하지 않을 뿐더러 각각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는 착상도 신선하고도 흥미롭다. 반면에 용어의 부적절함, 논리의 비약, 체제의 미비함 등이 이 연구의 흠결로서 나타나고 있으나, 탁월한 변증의 능력은 눈썰미 있는 평가로서의 기대감마저 갖게 한다. 김택구(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사회과학부문

한국사회 직면 현안 분석 시도

먼저 바쁜 학사일정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동대학술상 사회과학 부문에 응모한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감채를 보내고 싶다. 응모한 6편의 논문 모두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을 주제로 선택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시도 하였다. 그 중에서 장원과 가작으로 선정된 두 편의 논문은 설문조사와 인터뷰 자료를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방법론이 다른 응모작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돋보였다고 판단된다. 사회과학 분야의 논문은 주제의 적절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방법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선되지 않은 응모작에서도 날카로운 문제제기를 통해 나름대로의 논리적 전개틀을 시도하고 있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다소 부족한 면을 보완하면 좋은 논문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송일호(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자연과학부문

적절한 주제선정 돋보여

지능형 로봇은 정부에서 지정한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하나로,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일상 생활속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될 중요한 기술이다. 장원작인 '영상처리 기반의 감정 지능형 로봇' 논문은 감정 지능 로봇을 설계 및 제작한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감정 로봇의 설계에 있어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여 새로운 감정 모델을 제안하고 있으며, 인간과의 상호 작용을 위해 영상 및 음성에 대한 인식/처리 모듈까지 설계하여 로봇을 제작하였다. 특히, 웹서비스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인 서비스의 구현 부분에 대한 기술까지 포함하고 있다. 제안하는 새로운 감정 모델에 대한 평가와 다른 감

정 로봇 연구와의 비교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가작으로 선정된 '한국 전통약주 (진매, 수곡, 구기자) 휘발, 비휘발 분획성분의 생리활성' 논문은 한국의 전통 술에 대한 생리 화학적 효능에 대한 실험을 다룬 연구로서,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우리 민족 고유의 음식 문화의 하나인 술의 생리/화학적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전통 약주 이외의 타 주류 혹은 음식과의 비교를 통해, 전통 약주가 지니는 생리적 우수성을 보여준다면, 일반 독자에게 좀 더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연돈(정보산업대학 컴퓨터·멀티미디어학과 교수)

제43회 동대 학술상 제26회 동대 문학상 심사평

동대문학상 시부문 장원

미시시피

이태봉(사범대 국교3)

미시시피로, 미시시피로. 라틴 아메리카쯤에서 왔을까요. 사내가 거리 한켠에서 노래합니다. 까만 얼굴에 기타 비슷한, 그보단 작은 이름모를 악기 하나 달랑 들고 똥, 똥, 똥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 뒤 가서는 못 알아들어도 누런니 드러내고 단박에 내뱉는 "미시시피"만은 알아들었습니다.

미시시피는 북미의 커다란 강이라는데 가보진 못했어도 미시시피, 이름으로도 기차게 좋습니까. 사내도 아마 가본 적이야 없겠지만 미시시피, 미시시피 즐겁게만 발음합니다.

사내의 고독엔 고수머리에 포랑포랑한 산초나 에르난데스, 아니면 페르디난도란 이름의 가난한 아이들이

배고플 적마다 "꼬레 꼬레"라 노래하겠죠. 어쩌면 마르케스의 「백년 동안의 고독」에서처럼 아우렐리오란 이름의 꼭 닮은 자식들을 주렁주렁 낳았을지 몰라도.

민 이국당 노래가 꽤 서러워도 누런니로 활짝 웃으며 미시시피 미시시피 하나 오늘 행인들 동전을 많이 던졌나 봅시다. 팔랑. 동전 하나에 뽕 하나, 팔랑 팔랑 동전 하나

에는 우리 아기 옥수수 하나. 이런 식으로 계산할 줄을 누가 아나요.

미시시피로 미시시피로. 노래에 지는 해는 보도를 붉게 적시고 저녁은 발목까지 차올라 나는 그만 오늘의 오후를 소화해야겠습니다. 집으로 갈 적엔 입을 헤벌쭙 벌리고 휘적휘적, 한 번 보도 못한 미시시피, 미시시피를 흥얼거릴런가요.

※ 본사 홈페이지(http://www.dgupress.com)에서 전제당선작품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시부 장원 이태봉(국교3), 가작 정경윤(문창1), 소설부 공동 가작 및 희곡·시나리오부 가작 정기수(신방4), 소설부 공동 가작 김나연(문창3), 희곡·시나리오부 장원 윤지영(연극3).

시부문

시적인 정서 풍부하게 담아내

총 11명 48편의 작품 중에서 끝까지 눈길을 끌었던 작품은 '미시시피', '뒤 돌아보다', '아마', '손으로', '구미호' 등이었다. '아마', '손으로', '구미호'는 유희와 재치가 있는 화법, 그리고 진지한 사고력과 관찰력에 기반을 둔 이미지 묘사력이 감동인 작품들이었다. 세 작품 모두 수작이었지만 '구미호'가 좀 평범한 시상으로, '손으로'가 그 진지함과 열정에 비해 소품이라는 점에서 결점이 지적될 수 있다면 '아마'는 완결성, 참신성, 읽는 재미가 모두 갖춰진 작품이었다. '미시시피', '뒤 돌아보다'는 개성적인 독창성에 비해서 다소 완결성

이 떨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 이런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미시시피'는 '뒤 돌아보다'와 더불어 시적인 정서가 풍부하게 느껴지는 작품이었다. 마지막 당선 후보작은 '미시시피', '아마' 두 작품으로 좁혀졌는데, 그 중에서 선자(選者)의 마음을 최종적으로 사로잡은 것은 '미시시피'였다. '아마' 역시 시인의 자질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수작이었지만 '미시시피'의 심도 있는 시적 정서와 언어감각의 매력은 '아마'의 일상적 허무주의의 정서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김준식(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소설부문

장원작에 2% 부족 ... 가작 2편 선정

소설 부문 응모작들은 모두 10편이었다. 개인적 꿈과 이상의 좌절을 환상적 기법을 통해 보여주는 '아우라지 강'은 '좌절과 그 극복'이라는 담론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노력이 돋보이지만, 사건과 사건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 부족해서 소설의 리얼리티를 손상시키는 게 약점이다. '꽃밭채로 가리운 그 입술로'는 열거적인 살인행위에 대한 보고인데 사건이 복잡하고 이야기가 많아서 단아한 통일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중편서사구조 속에 웅해할 만한 이야기이다. '비 오는 날에 먹는 김치 칼국수'는 요리에 대한 세밀하고 성실한 묘사가 돋보이지만 사건의 인과관계 처리가 미숙한 게 결점이다. 육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발톱'은 다양한 화자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문체도 안정된 편이다. 그러나 개별 목소리들의 변별성이 드러나지 않으며, 실제작가의 개성 속에 함몰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가작으로 추천한다. 결혼과 사랑과 욕망의 사건 세계를 경험하는 여성의 내밀한 심리를 다루고 있는 '길'은 가장 안정된 서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뜨거운 욕망의 문제를 차분한 문체로 접근함으로써 거리조정의 미적 효과를 제공할 줄도 알지만, 당선작으로 밀 만한 성취도는 조금 부족한 편이다. 역시 가작에 선한다. 호명된 모든 작품들, 부족한 2%를 부지런히 채워서 촉망받는 작가의 대열에 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영우(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

윤재용(본사 주간·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희곡·시나리오부문

극이 갖춰야 할 미덕에 충실

마지막까지 거론된 작품은 '햄', '여행', '니가 가지세요' 등 세편이었다. '햄'을 당선작으로 뽑는 데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치 않았다. 그만큼 '햄'은 인물의 캐릭터와 상승적 플롯, 정제된 대사력 등, 극이 갖추어야 할 미덕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다. 강력한 속도감을 지니고 클라이막스로 향하면서, 요소마다의 디테일을 잘 살리고 있어 극적 몰입이 가능한 작품이었다. 좋은 재목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

치 않는다. '여행'은 소재 착상이 신선하여 눈길을 끌었으나, 관념적이면서도 교훈적인 점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니가 가지세요'는 극의 절정이 없어 밍밍한 점이 흠이었으나, 경쾌한 전개와 유려한 문체가 호감이 가는 부분이였다. 하여 '햄'을 당선작으로, '니가 가지세요'를 가작에 선(選)하기로 하였다. 이종대(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만희(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

제7회 東院學術賞 심사결과

Table with columns: 계열, 번호, 학과, 성명, 과정및학위, 논문 제목, 비고. Lists award winners in Humanities,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동원학술상 취지) 본교는 대학원생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여 학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연구결과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생 우수논문 시상제도인 동원학술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8월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부단한 준비과정과 논문심사위원회의 2차례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총 4편의 최우수상과 6편의 우수상, 5편의 장려상을 선정하였습니다.

대 학 원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기관 초청 세미나

본교 교수님들이 외부 연구과제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국가 R&D사업 과제 수주를 위한 Proposal 작성요령 그리고 수주전략등과 관련한 강의 및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1. 일시 및 장소: 2005. 11. 30.(수) 14:00~16:00 덕암세미나실
2. 주 제: <대학의 국가 R&D사업 수주 전략>
3. 발표자: 강태건 박사(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팀장)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전화: 02-2260-3870, 팩스: 02-2260-3691

동서사상연구소 종합세미나

동국대학교 부설 동서사상연구소에서 2005년도 하반기 종합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1. 일 시: 2005년 12월 16일(금요일) 오후 1시~7시
2. 장 소: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2층 AV실

동서사상연구소

행정·외무고시·언론사시험반 장학생 선발 공고

아래와 같이 2006-1학기 고시장학생 선발시험을 실시하오니 수험생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1. 일 시: 2006. 1. 7(토), 10:00-15:20
2. 장 소: 동국관 M303, M304, M305, M306
3. 대 상: 본교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 주의사항: 복학예정자로서 휴학당시 장학금을 수혜한 자, 이수학점의 부족 또는 성적미달자, 이중장학 수혜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Table with columns: 장학명, 선발대상, 장학금액, 선발인원, 비고. Details scholarship programs for various exams.

4. 인 원

Table with columns: 시험구분, 학년, 응시과목. Lists exam categories and subjects.

※ 영어는 토익, 토플, 텡스 등 점수 보유자 장학 우선권 부여.

Table with columns: 시험명, TOEFL (PBT, CBT), TOEIC, TEPS, G-TELP, FLEX. Lists exam names and scores.

- 6. 선발기준: 평가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고시반 지도위원회의 사정을 통해 선발
7.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 기간: 2005. 12. 12. (월) ~ 2005. 12. 30. (금)
(2) 장 소: 계산고시학사 1층 참고열람실 (사전,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지참)
(3) 분 의: 계산고시학사 참고열람실 (2280-3571), 박진희 조교 (010-9643-1219)
8. 합격자 발표: 2006. 1. 30. (월), 13:00, 계산고시학사 정문 게시 예정

행정·외무고시·언론사시험반 지도위원회



반드시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야만 외국... 이에 우리 신문에서는 외국 문화원들을 직접 찾아가 그 곳의 문화를 직접 느껴보았다.

버스 타고 떠

문화원에는 이국 정취가 '물씬'

홍보 부족으로 발길 뜬 문화원 많아 독특한 문화행사 등 볼거리 풍부

방학이 되면 대학생들은 배낭여행이다. 어학연수다 세계 각국을 찾아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국내에서도 세계 다양한 나라의 이국적인 문화를 즐기고 그 나라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세계의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이해하면서 어학 실력까지 쌓을 수 있는 곳, 외국 문화원이 바로 그곳이다.

를 가지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선진국 문화원들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편"이라며 "다양한 대외적 행사 마련 등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스탄불과 이탈리아 문화원의 경우는 그 나라의 정통 요리를 직접 배우고 시식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으며, 중남미 문화원의 경우는 1년에 한두 차례 중남미 음악 관련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프랑스 문화원 상송클럽을 찾아

“상송을 통해 어학과 친목 두 마리 토끼 잡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대 날 사랑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으리.” 지난 24일 프랑스 문화원 행사실에는 10여명의 상송클럽원들이 원형으로 둘러 앉아 아담하지만 힘있게 상송 '사랑의 찬가'를 부르고 있었다.

매주 목요일 프랑스 문화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송클럽은 지난 83년 창설된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장수' 클럽이다. 클럽 초기 멤버인 신미영(42) 씨는 "초기에는 텍스트를 이용한 어학 공부의 목적에서 창설되었지만, 86년부터는 음악 자체를 배우고 문화를 느끼는 데 중점을 두었어"라고 말한다.

한편 프랑스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만큼 클럽을 찾는 구성원들 역시 다양하다. 10대부터 40대, 학생, 직장인, 성직자, 교수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클럽장 장성근, 신미영 씨.



회원이 속해있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을 통해 친목을 쌓고 있는 상황이다.



삶과 지구를 생각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共生)을 생각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상생(相生)을 생각합니다.
전통과 첨단을 생각합니다.
역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더불어 행복한
Win-Win의 내일을 생각합니다.

일류동국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주십시오

<p>후원금 종류</p> <p>100만등담기 기금, 발전기금, 불교병원기금, 장학기금, 특정목적기금, 단위기금, 동국사랑저금통기금, 수증물품</p> <p>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세금공제</p> <p>기부자님께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p>	<p>후원금 참여방법</p> <p>일시와납, 월납, 분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개인, 법인 및 단체 명의로 후원 가능 계좌이체(CMS)를 통한 편리한 방법 가능 현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미술품 등의 수증물품으로도 가능합니다.</p> <p>서울캠퍼스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T 02-2260-3794~5 경주캠퍼스 기획처 대외협력팀 T 054-770-2100 ARS 기금접수 060-7000-119</p>
---	---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나는 세계여행



중남미 문화원 탐방기

'화려한' 중남미로 여행을 떠나다

지하철 구파발역에서 내려 경기도 고양동 시장 앞에서 꼬불 꼬불한 길을 걸어서 도착한 중남미 문화원. 입구에 들어가니 넓은 문화원 부지에 친숙한 멕시코 민요 '라 쿠카라차'가 낮게 울려 퍼지고 화려한 색상의 정원과 붉은 벽돌의 건물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아침 일찍 중남미 문화원을 찾은 이금하(24) 씨는 "문화원이 기대 이상으로 경관이 빼어나 놀랐다"며 "다른 나라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곳은 아름다운 경관 덕분에 학생들의 견학은 물론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하다. 개장한지 얼마 안 된 이른 시간에도 이미 견학 온 학생들과 중남미 남성 등이 관람하고 있는 모습은 중남미 문화원의 인기를 가능하게 했다.

외국 문화원은 그 나라의 문화 홍보를 위해 각 나라에서 직접 설립·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구든 중남미 문화원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그 규모와 잘 정돈된 내·외관에 중남미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곳은 30년 동안 중남미 4개국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한 이복형, 홍갑표 부부가 은퇴와 동시에 설립한 사설 기관이다. 이에 대해 지난 58년 우리학교 법대를 졸업한 이복형 원장은 "중남미의 문화를 국내에 알려 국가 간 교류에 힘쓰려 설립했다"며 "평소 중남미 문화에 관심이 많은 이들 이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중남미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운 3,500여 점의 회화 작품과 민속품은 이 부부가 오랜 해외생활 동안 수집한 것들로 평상시 보기 힘들다는 데 그 매력이 있다. 중남미에 대한 종합적 테마, 문화공간은 아시아에서도 유일하다고 한다. 지난 10월에는 이런 점이 높이 평가돼 문화관광부에서 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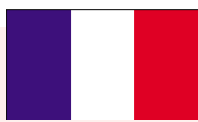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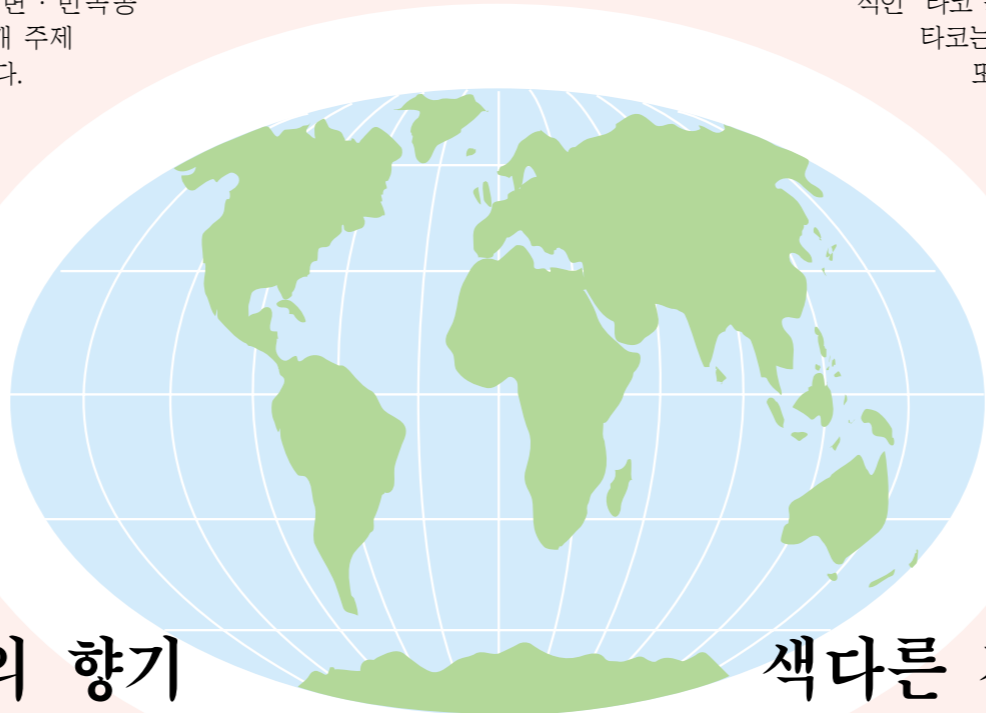
94년 설립된 박물관에는 토기·석기·목기·가면·민속공예·생활의 6개 주제별 전시실이 있다. 이곳에서는 인디언 문화의 대표적 예술

품 등을 관람할 수 있다. 97년에 개관한 미술관은 중남미 화가들의 전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여기서 민속공예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또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야외 조각공원에서는 중남미 12개국 작가들의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다. 내년에는 명상 등 정신수양을 할 수 있는 카피아(기도실)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3월부터 10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조각공원에서 멕시코 전통 음식인 '타코'를 맛볼 수 있다. 타코는 옥수수 전병인 토마토에 잘게 썬 소, 돼지, 닭고기, 야채 등의 양념을 곁들여



먹는 음식이다. 또한 쌀과 닭고기, 해산물 등에 사프론이라는 향신료를 첨가하는 음식 '빠에야'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중남미 문화원의 별미다. 미리 예약하면 점심에 풀코스도 먹을 수 있다. 제자들과 함께 중남미 문화원을 찾은 초등학교 교사 강숙영(43) 씨는 "아이들에게 평소 접하기 힘든 문화를 보여주고 싶다"며 "특히 조각공원의 경관이 멋져 원래 자주 찾는 장소"라고 한다. 사람들의 타국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독특한 테마 문화관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는 중남미 문화원. 중남미 문화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아름다운 중남미 문화원으로 여행을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niitake@dongguk.edu



프랑스 문화원 탐방기

도심속에서 만난 프랑스 문화의 향기



뻐뻐한 건물들이 가득한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원한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다면 누구나 한번쯤 관심을 가지고 발길을 멈출 것이다. 굳이 장시간 비행을 하지 않아도 프랑스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오아시스, 주한프랑스 문화원이 바로 그곳이다.

서울역 3번 출구로 나와 고층의 빌딩들 사이에서 만날 수 있는 프랑스 문화원은 지난 2001년 경복궁에서 이곳 중구 봉래동으로 이전하면서 현대적 감각을 갖춘 문화원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그래서인지 들어가는 입구부터 프랑스 음식과 간단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카페테리아와 미래의 도시를 연상케 하는 조형물이 문화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온다.

프랑스 문화원을 처음 찾아왔다는 김은정(36) 씨는 "평소 불어에 관심이 많아 개설돼 있는 강좌와 자료 등을 살펴볼까 했는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 유익하다"고 환호적인 표정을 짓는다.

일부 어학교육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문화원들과는 달리 프랑스 문화원은 어학뿐만 아니라 유학 상담, 프랑스 관련 정보 제공,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문화원 내 고등교육 진흥원에서는 무료로 전문

상담원들이 프랑스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가고자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랑스 현지 대학 학습 교육 프로그램, 유학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등교육 진흥원의 정주연 직원은 "유학 상담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프랑스 유학 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 문화원의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현대적 분위기의 각종 도서와 시청각 자료들이 구비된 미디어 도서관이다. 미디어 도서관에는 현재 프랑스 소설, 예술서적, 잡지 등 각종 도서 및 영화 CD, DVD 등 1만 4,000여종의 자료가 구비돼 있다.

이러한 자료와 더불어 관람객들이 직접 자료를 시청할 수 있는 DVD 플레이어와 독서 공간이 마련돼 있어 곳곳에 프랑스와 관련된 어학이나 문화를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1년간 프랑스 유학을 다녀왔다는 윤현각(26) 씨는 "유학 중 주변 사람으로부터 문화원 정보를 처음 접했어요. 한국에 돌아가서도 프랑스에 대해 더욱 공부하고 싶다면 이곳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많은 자료들이 잘 구비돼 있어서 한 달에 2, 3번씩 찾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프랑스 문화원은 각종 클럽 문화와 다양한 문화원 주체 행사로도 유명하다. 매주 목요일에는 20여년 전통의 상송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에는 프랑스 신문이나 잡지, 책 등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클럽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반에는 프랑스문화원 내 행사실에서 '금요 프랑스 영화 상영회'가 열린다.

바쁜 일상 속에 '작은' 프랑스를 찾아 잠깐의 여유를 만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한번쯤 도심 속 오아시스인 프랑스 문화원을 찾기를 권유해 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중국 문화원 탐방기

색다른 강의 통해 중국을 들여다 본다



TV속 중국의 소녀들이 서투른 한국말로 좋아하는 우리나라 가수의 이름을 외치고 열광한다. 지금 중국에는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연예인들을 보며 열광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즘, 중국의 '한류 열풍'에 걸맞는 '중류 열풍'을 몰고 오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지난해 12월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새롭게 선보인 곳이 있다. 중국 문화원이 바로 그곳이다.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도심의 높은 빌딩 속에 자리잡은 문화원의 모습이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중국문화원에 도착해서 처음 맞게 되는 입구에 있는 커다란 사자상은 보는 이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문화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1층 로비 텔레비전 중국 방송 CCTV가 방영되고 있어 중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선다.

문화원 내 전시실에서는 다음달 12월 까지 '외국 사진 작가의 눈에 비친 티베트' 사진 작품 전시회가 진행 중이다.

티베트의 아름답고 신비한 자연경관과 해맑게 웃고 있는 티베트 사람들을 담은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더욱 친근하게 다가온다.

이처럼 중국 문화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문화를 조금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고 있다. 문화원의 도서관에는 우리 주변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수많은 중국 관련 책들과 화보집, 잡지들이 비치되어 있다. 문화원 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문화원 도서관 책들은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대출이 가능하고, 중국 문화원 도서관에는 1만 5천여 종의 중국 관련 서적과 잡지들이 비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중국문화원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다른 문화원들과 비교했을 때 어학강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강의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문화원에는 중국어 강의를 비롯해서 서예, 동의학, 태극권 강의를 매주 진행하고 있다.

문화원의 한 관계자는 "강의도 수준별로 초급과 중급으로 나뉘어 시행하고 조만간 중국요리 강좌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문화원을 찾은 사람들이 중국영화 감상할 수 있도록 지하 소극장에서는 중국영화 상영된다.

또한 문화원 외부에는 중국 차를 시음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어 중국문화원을 찾은 사람들이 중국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다.

늘어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관심을 부여주듯 중국 문화원은 개관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한해 평균 방문하는 관람객 수가 1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중국 문화원이 우리가 가까이서 중국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거대한 대륙 중국의 문화를 우리나라의 도심에서 보다 가깝게 접근하고픈 사람들이 있다면 중국문화원은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둘러볼 만한 곳으로 추천해 보고 싶다.

iamjh713@dongguk.edu

문화원 정보 Tip

▲독일문화원

우리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독일문화원은 어학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어를 학습할 수 있고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다음달 1일까지 영화·미디어 행사의 일환으로 드라마 센터에서 '레스 페스트 디지털 영화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매주 토요일마다 독일어회화클럽 '포럼'이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독일문화원 36호실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클럽은 독일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독일문화원은 남산시립도서관 옆에 위치해 있으며, 버스 0014번, 402번을 이용하면 된다.

▲영국문화원

영국문화원은 어학교육으로 많이 알려진 곳이다. 영어수업이 초등학교생과 성인, 비즈니스 부분으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2006년 1회기와 겨울방학 코스 영어교육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또한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30일 까지 조각가 이형우 교수의 '영국 관련 포토 에세이 전시회'가 영국 문화원에서 개최된다.

영국문화원은 광화문 사거리 흥국생명빌딩 4층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광화문 역 6번 출구를 이용해서 찾아갈 수 있다.

▲이스탄불문화원

이스탄불 문화원은 현재 자원봉사 프로그램, 홈스테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진행 중인 문화행사로는 어학강좌, 터키요리 강좌, 전통 춤 강좌, 터키 역사 강좌 등이 있다. 또한 터키와 관련한 장서 700여 권과 신문, 잡지 등이 구비돼 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터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터키식 티(tea)파티를 열고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터키의 향차와 다과가 제공된다.

이스탄불 문화원은 지하철 홍대입구 2번 출구, 4번 출구에 위치해 있다.

▲이탈리아 문화원

이탈리아 문화원에서는 서강대 국제문화교육원과 공동 주관으로 이탈리아어 어학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현재 가을학기 강좌가 진행중에 있다.

또한 문화원 주관으로 '시칠리아의 회화' 전시회가 다음달 1일부터 2006년 1월 22일까지 대리미술관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이탈리아 문화원은 지하철 한남역 1번출구에 위치해 있으며 버스 83, 83-1, 1, 211, 28, 28-1, 17, 12-3, 222를 이용해 찾아갈 수 있다.

정리=헤 iamjh713@dongguk.edu

얼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매 봉장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 · 재보 : dgupress@dongguk.edu

“졸준위 선거 문제있다”

지난 11월 21일자 동대신문 2면에 실린 제18대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 선거 1번 후보자를 인더뷰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졸준위 선거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내년보궐선거로 넘겨야 된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우선 서울지역에 있는 대학교 몇몇이 교비로 앨범비를 충당한다는 인터뷰 내용이다. 서울경기 인천지역 졸업준비위원회 연합(이하 서경졸연)의장을 맡고 있는 현 졸준위장으로서 서울지역 뿐 아니라 대한민국 통틀어서 교비로 앨범비를 충당하고 있는 학교는 없다. 이것은 서경졸연 의장과 동국대 졸준위장의 명예를 걸고 단호하게 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1번 후보자는 서울지역의 몇 대학은 그러하다고 했다. 근데 구체적으로 대답하라고 했을 때 모른다고 말을 했다. 자신의 공약중의 한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믿고 1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또한 졸준위 선거는 총학생회장 선거(이하 총학)와 다르게 추천인 숫자가 다르다. 직접선거인 총학과 다르게 간접선거인 졸준위 선거는 추천인을 3학년 2학기 과대표로 해서 1/4정도 추천을 받는다. 그런데 추천인을 4명으로 받는 것으로 공고가 났다. 그런 그 4명은 누구인가. 좋다, 추천인들이 과대표라 하자. 하지만 65~66개 과대표가 있는데 중선위에서 임의적으로 후보자와 합의했다.

43개 과대표가 과대표장학을 받았으니 그 사람들만 선거권이 있다고 말이다. 선거를 후보자랑 합의 보는 중선관위가 어디 있는가. 유권자의 1/3정도 차지하는데 그 과대표들은 과를 대표할 수 없는 것인가. 다시 후보자들은 누구에게 추천을 받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또 이전에 1번 후보자가 총대의원실을 출입하는 것을 봤다. 그곳은 출입금지 지역이었다. 졸준위장은 잘못된 정보로 현 4학년 학생과 대의원 그리고 졸준위를 모독한 기호 1번이었던 다음해 졸준위장에게 공식 사과문을 요청하고 중선관위는 공정성 문제와 유권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바로 이번선거를 다음해 보궐선거로 넘기는 것을 요청한다.

정현준(졸준위위원장 · 공과대 토목공4)

밝고 건강한 동국 만들기

내년이면 100주년을 맞는 우리학교는 지난 주 총학생회장 선거와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로 떠들썩했다.

작년에 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학생회가 운영돼 학교의 주인인 학생의 의견이 학교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생기는 여러 문제가 있었던 만큼 100주년 맞이 학생회장 선거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깊다.

그러나 선거 기간 내내 여기 저기에서 잡음이 많았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의명으로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상에 게재하는 ‘나의주장’ 게시판에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근거 없는 의견들로 하루에도 수많은 글이 올라왔다. 물론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상에 올리고 여러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학문의 장이라고 여겨지는 대학이란 공간에서 익명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책임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명성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로 인해 동아 내의 이분법적

편 가르기가 형성돼 이와 별개인 학생들의 어른까지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 보기 꺼렵기도 했다.

선거도 끝났다. 이제는 총학생회와 함께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내년이 기다려진다. 총학생회가 들어선 만큼 학생들은 학생회가 우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총학생회도 선거기간에 내건 공약들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흠어진 동약의 의견들을 하나로 수렴하는 노력을 기해 밝고 건강한 100주년의 동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진웅(불교대1)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자

2005년이 시작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다. 올 한 해는 새내기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기분 좋고 설레었던 한 해였다. 갓 입학해서 보름동안 강의실을 찾아 헤매었던 것도, 빗꽃이 흩날리는 교정을 걸었던 것도, 그리고 여름이 지나 단풍잎과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을 느꼈던 것도 말이다.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성년이 된다. 아직 고등학교 기억이 생생하기만 하고 교복이

낫설지도 않은데 성년이라니... 내가 20살이라는 나이에 무엇을 했는지 부끄럽기만 하다.

매년 그랬던 연초에는 1한 계획을 그럴싸하게 세워놓는다. 이 중에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지’ 하며 커다랗게 계획표를 뽑아 벽에 붙여 놓기까지 한다. 그러나 일주일, 또 한 달이 지나 계획이 얼마만큼 실천되고 있는지 돌아켜 보면 언제 세웠냐는 듯이 흐지부지되었던 경우가 벌써 여러 해 짜이다.

마라토너가 42.195km를 뛰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다면 코스를 완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받을 수 없다. 끊임없이 자신을 질책하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 완주했기에 아름다운 웃음을 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2006년만큼은 종이에 내 꿈과 목표를 글적여보며 다짐을 했던 것 그대로 보람찬 한 해를 보내야겠다. 한 발자국 씩 꿈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도록...

장해민(정신대 컴퓨터멀티공1)

논단

BK21 사업 ...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이 기준을 충족할 만한 대학이 몇 되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날로 대학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없다는 것은 재정이난이 가중된다는 것을 뜻하며, 부실 대학이란 판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BK21 사업의 목표인 연구중심대학육성은 명문대와 비명문대를 나누는 기준표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2단계 사업이 소수 대학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면 대학 서열의 구분이 더 뚜렷해질 것은 분명하다.

교육부의 주장대로 고급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심본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급인력 양성이 대다수 대학을 배제한 채 몇몇 대학이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별 대학의 발전 가능성을 차등하여 전체 대학의 퇴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쟁에서 밀려난 다수 대학들은 정부 지원이 줄어든 만큼 등록금에 의존하게 되거나 몰락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2단계 BK21 사업은 2만 명 이상의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하지만 1차 BK21사업을 통해 양성된 연구인력도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채 적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사 후 연구원·계약교수 등 BK21사업에 참여한 신진연구인력의 64%가 계속 대학의 연구인력으로

남아있다.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도 1단계보다 확대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전체 지원비 중 14%로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또한 참여 조건으로 산학협력단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학협력단은 조급한 추진 과정에서 법령 및 제도 미비로 운영상 혼란과 차질을 빚고 있다. 2단계 사업에서 신설된 고급전문서비스 분야도 의·치학전문대학으로 대학을 강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에산정책자는 1단계 BK21 사업을 평가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반발을 불러왔다고 결국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업 설계 단계부터 치밀한 준비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다. 공청회가 현장의 참여를 배제한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러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으로 차별을 심화시킬 것이 아니라 전체 대학을 발전시킬 비전과 계획을 내와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학과 지역대학은 참여조건 완화와 예산 안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나라 대학의 생존 능력마저 말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독자 사진첩



“행복하세요” ...

얼마전 사범대 93학번 선배님이 남산골 한옥 마을에서 전통혼례를 치렀습니다. 이에 우리들이 혼례굿으로 축하했습니다.

- 단과대 풍물대 연합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 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4매 분량의 글을 여문면에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edu

보리수

겨울의 길목에서

연구실에서 내려다보이는 교정의 은행나무 잎이 너무나도 아름답더니 한 잎 한 잎 떨어져 이젠 가지만 앙상하게 간다. 짙푸른 녹색을 띄고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싱그러움을 주었던 나무 잎이 노란 황금색으로 변해 아름다움을 뽐내다 마치 할 일을 다 한듯 떨어져 사라져가고 있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저 떨어지는 은행잎들을 보면서 마음이 사해지는 건 중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범부의 정 때문인가.

올해 한 해, 저 은행잎은 나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었다. 늘 싱그러움으로 힘을 주었고, 주변의 여러 모습과 어울려서 우리 학교 교정 참 예쁘다하며 미소 짓게 했다. 아무런 말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늘 바라보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

이뤄 놓은 성과 없이 바쁘기만 했던 난 올해 내 주변에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편안함을 주었을까?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 준 적은 있었는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모습까지 내 놓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달래주려는 붓다의 ‘자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 소중한 인연들에게 조그마한 기쁨이라도 느끼게 해 준 적은 있었는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함이 생각난다. 포근한 옷, 따뜻한 물, 편안한 말 ... 따뜻하고 편안한 나를 가능하게 한다. 모두가 그렇겠지. 웃기만 스쳐도 오백생의 인연이 모인 거라는 그 깊고 깊은 내 인연의 모습들 ... 내 마음부터 따뜻함으로 채우자. 그래서 따뜻한 말과 편안한 미소로 그들을 대해보자. 저 나무가 그리하듯 바라지 말고 해보자. 모든 걸, 하루 종일 다 해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 개씩만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서 행복한 미소를 보자.

중 호 스님
불교대학 선학과 교수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11/28)	육개장 (2000)	삼선잡곡이백반 (2000)	된장찌개 (3200)
	제육고추장볶음 (2000)	닭갈비 (2000)	부대찌개 (3500)
	비빔밥&생선가스 (2000)	간짜육 (2000)	우동조림백반 (3500)
화 (11/29)	부대찌개 (2000)	비지락수제비 (1800)	된장찌개 (3200)
	팔보채 (2000)	중국식볶음밥 (2000)	만두전골 (3500)
	햄계란구이 (2000)	제육비빔밥 (2000)	삼치구이 (3500)
수 (11/30)	손만두국 (2000)	사골우거지탕 (1800)	된장찌개 (3200)
	치킨카레볶음밥 (1800)	탕수육 (2000)	멸치알술밥 (3500)
	잡채달걀 (2000)	오징어무구백반 (2000)	닭도리탕 (3500)
목 (12/1)	콩나물국밥 (1800)	감자탕 (2000)	된장찌개 (3200)
	참치김치달걀 (2000)	꾸꾸미이채볶음 (2000)	돈가스 (3500)
	떡볶고기 (2000)	김치찌개 (2000)	산채비빔밥 (3500)
금 (12/2)	닭곰탕 (2000)	돈육콩나물찌개 (1800)	된장찌개 (3200)
	제육강정 (2000)	하이리이스 (2000)	콩비지찌개 (3500)
	오무라이스 (2000)	유부초밥&우동 (2000)	오징어달걀 (3500)

2006-1 학기 우수장학금 신청안내

- 장 학 명 (장학금액) :** 우수장학 (등록금 30%)
가. 단과대수석장학 및 전공(학과)수석장학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순에 따라 선발함.
나. 신강 교양장학도 우수장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우선 선발함.
다. 보훈자녀 등 계속장학생은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재학생으로 우수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
가. 2005-2학기 취득학점이 17학점(졸업학점이 120인 경우는 15학점),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취득학점 미달 및 평균평점이 3.0미만인 경우 추후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나. 교내,외의 타 장학금을 받는 자 제외
다. 2006-1학기 복학예정자 제외
- 신청기간 :** 2005. 11. 15(화) ~ 30(수)
- 신청장소 :** 해당 학업지도교수
- 신청방법 :**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평가기준 :** 아래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가. 학업성적 : 50점
나. 사회봉사 : 10점
다. 가정형편 : 20점
라. 학업지도교수평가(학과특성 및 기여도) : 20점
* 항목별 세부기준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해당대학 교학과에 문의바람
- 제출서류**
가. 장학금신청서(<http://www.dongguk.edu>에서 다운로드 사용)
나. 사회봉사인증서
1) 교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봉사기관에서 작성한 봉사활동 증명서류를 해당대학 교학과에 제출함.
2) 동국참사랑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자동 접수 처리됨.
3) 사회봉사경력에 졸업 시 까지 계속 인정됨.
다. 지방세 세무법(미)과세증명서 : 부모 각각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라. 기타 가정형편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마. 학업성적은 자동으로 접수 처리됨
*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우수장학금을 수혜 할 수 없음.

학 생 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

- 신청자격**
가. 2005학년도 2학기 현재 교직과정이 승인되어 있는 학과(전공)의 2학년 2학기 재학생.
중어중문, 연극영화는 9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세무회계(주,야)는 2002년 이후 입학자부터 선발함.
나. 2학년 2학기(개설학기 포함)까지 누계 평점 평균이 2.5 이상인자.
- 선발일정**
가. 신청서 접수 및 면접

구분	접수기간	면접기간	비고
1차	2005.11.28~12.2	2005.12.6~12.16	면접은 학과별 일정에 따라 진행함
2차	2006.2.1 ~ 2.3	2006.2.6 ~ 2.8	학과에 잔여석이 있을 경우 시행함
- *1차에서 선발된 학생이 타학과로 전과(전출)할 경우 교직과정 이수 자격이 상실되며, 1차 선발 결과 선발된 원이 해당학과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정원에 미달할 경우 전과(전입)생을 포함하여 2차 선발함.**
나. 접수처 :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면접일시 및 장소는 각학과에서 추후 공지)
다. 신청서류 : 교직과정 이수신청서(소정양식) 소속 행정지원실 배부 또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교직과정 게시판에서 출력가능).
라. 교직이수자 선발 공고 : 2006.2.28이전 소속 대학 행정지원실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 선발기준 및 방식**
가. 교직과정 설치 학과(전공)의 선발일정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및 선발정원은 학교 홈페이지 교직과정 게시판 참조)
나. 1,2학년 누계성적(90%)과 교직인성·직성을 반영한 면접(10%)으로 선발함.
- 유의사항**
가.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이 전과하면 그 자격이 상실됨.
나. 교직복수전공 신청은 학위복수전공 신청으로 대체하므로 학위복수전공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선발되어야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범대 행정지원실(☎ 2260-3751)로 문의 바랍니다.

사 범 대

달하나 천강에



김상겸 법대법학과 교수

계절이 바뀌면서 남아있던 나뭇잎마저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은 찾아오고 캠퍼스도 노랑, 빨강의 단풍색을 벗어던지고 월동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기말시험을 치고 나면 캠퍼스도 시끌벅적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동문의 계절 속에 들

어갈 것이다.

한 학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항상 우리에게게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 학기동안 계획한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고, 좀 더 노력할 것을 하지 못하였다는 안타까움도 남는다. 그 아쉬움이 후일 인생의 추억이 될지는 몰라도, 현재는 마음의 집이 되어 미련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아쉬움은 미련으로 남지만 그래도 우리 자신을 한번쯤은 되돌아보게 한다. 여하튼 대학에서 학사일정을 쫓아가다보면 학기말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통하여 이미 새 학기는 시작된다. 방학이 있음에도 학기는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연결되고 있다.

겨울 속으로 침잠하고 있는 캠퍼스는 세상의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길을 가는 존재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대학도 변화의 흐름 속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가 대학인지 모른다.

캠퍼스의 진정한 아름다움

학문의 전당이란 대학의 본 모습은 그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대학의 모습도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취업난에 캠퍼스는 낭만이 사라지고 그 여유롭던 대학의 분위기도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대학은 취업을 위하여 잠시 머물다가 가는 정류장처럼 인식되어 가고 있다. 과거보다 더욱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대학은 삶을 위하여 당연히 거쳐 가야 할 과정으로 투영된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생존경쟁이 치열해져도 순간순간 보이는 캠퍼스의 모습들은 아름답기만 하다. 그렇지만 캠퍼스의 아름다운 모습들의 주인공은 캠퍼스를 꾸며주는 외형이 아니다. 캠퍼스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훌륭한 건물이나 멋진 조경을 잘 가꾸어진 캠퍼스의 산책로, 깨끗한 식당과 여유로운 휴식공간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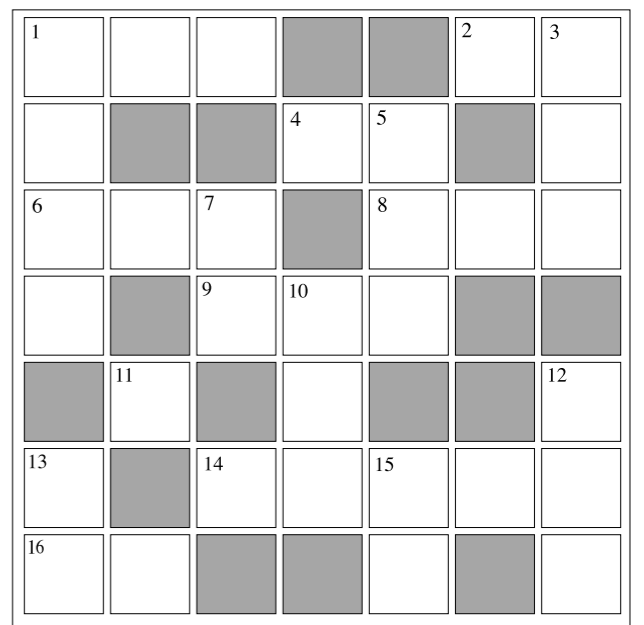
니다.

진정으로 대학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열심히 강의를 들으며 과제해결을 위하여 열띤 논쟁을 벌이고 밤늦도록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삶을 고뇌하며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해가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대학을 아름답게 만든다.

깊은 시절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위하여 공부에 전력투구를 하는 모습은 인생에 있어서도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우리에게 노력은 내일을 위한 저축이다.

또한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인간에게만 희망이 보인다. 인간에게 희망은 생명이며, 희망이 없는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학생에게 방향은 내일을 위한 준비기간이다. 다가오는 방향은 다음 학기를 위한,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다. 노력만이 후회와 아쉬움을 사라지게 한다.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는 발행일자 동대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답을 적어 보사 총무부에 응모해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 호 정답과 당첨자는 동대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편집자

가	사	학	경
죽	위	생	활
산	더	미	대
심	학	위	력

당첨자
임지선(국문3)
손진리(신방3)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참신한 기획·기사 다양 전체적 편집은 혼란스러워

동대신문은 주간 매체로 기사의 생명력을 유지해야한다는 점에서 기사배치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에 지난 비전 선포식 관련 기사는 참신했다. 그동안 학교사업에 대한 어떠한 알림도 없었던 만큼 눈에 가장 잘 들어왔던 기사였다. 또한 총학생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기사는 후보자들의 입장을 분야별로 정리한 점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러 이미지와 사진으로 혼란스러웠다. 1면은 시각적인 면에서 실패했다.

2면은 보면 졸준위 후보자 인터뷰가 선거 하루 전에 실렸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인터뷰 사진은 독특했지만 이미지가 무거운 보도면인 만큼 일반 인터뷰 사진을 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3면 기획취재는 갑작스런 친일과 청산에 관련한 아이টে임을 잡은 부분은 부적절했다. 대학내 친일청산에 대한 움직임은 신선했다. 하지만 요즘 여러 곳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선거관련 기획취재와 같이 더 유익한 아이টে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면은 조류독감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어 좋았으며 지면배치가 잘 정돈됐다. 5면 여론은 처음 펼쳐보고 들었던 느낌은 ‘혼란스럽다’였다. 기사량을 줄이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평가한다. 6면 사람면은 각계각층의 동문을 통해 우리학교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지면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정태섭 교수 칼럼은 지면 성격에 맞는 칼럼을 적절하게 구성해 기자의 노력이 엿보였다. 7면은 서울시 문화정책을 비판한 탐기사를 유심있게 보았다.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서울시정책을 다시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정보였다. 하지만 정신없는 기사 배치로 지면의 기사가 붕 떠버릴 것 같았다. 8면은 비록 정보성 기사로 가득 차 있지만 나름대로 필요한 정보와 눈요기를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규혁(이과대 반도체2)

동국 히로아락



▲ 동대신문 제1027호(1989년 9월 6일)

⑧ 입시부정사건

지난 83년간의 역사를 맞을 당시 ‘민족동국’이 개교 이래 최대위기국면이라 불릴 회오리에 휩싸였다. 이리관 총장 등이 지난 1989년 8월 31일 입시부정사건과 관련 대검 중앙수사부에 의해 구속 송치된 후 우리학교에서는 ‘동국의 자주적 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총학생회, 직원노조, 대학원학생회, 조교협회, 민주동문회, 석림동문회, 불교도 연합회)’등 7개 단체를 즉각 구성했다.

공동위원회는 사태에 대한 냉철한 수습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며 학원탐안과 불교탄압에 대한 결연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후 9월 5일 이리관 총장은 부정입학사건으로 구속된 지 5일만에 법원의 구속적부심결과 불구속결정으로 풀려났다.

봉사활동 통해 얻은 작지만 큰 깨달음

학교 게시판에서 선제수련 포스터를 보고 신청서를 냈던 2년 전의 나에게는 해외봉사라는 순수한 마음보다는 전세계의 하늘을 보겠다는 어린 날의 꿈을 위한 마음이 더욱 컸다.

봉사활동이라고는 캔들가나 학교 봉사,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시인아저씨의 시를 들어주었던 일이 고작이었던 나는 봉사라는 송고한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결국 신청서에 ‘내 꿈을 위해서’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를 적어내고 마음을 비웠다.

하지만 일주일 후 나는 선제수련에 참가하는 50여명의 학생 중에 한 명이 되어 있었다. 성별과 연령, 환경이 달랐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같은 일을 위해 모인 것이다.

1달여를 같이 지내면서 서로 부딪치고, 밤을 새워가며 의견을 개진하고, 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별빛을 등불삼아 마음을 나누기도 했다.

때로는 혼자 찢어트린 가슴을 부여잡아야 할 때도 있었고, 이불 속에서 가만히 눈물 흘린 날도 있었다.

선제 수련은 내게 서울이란 이 크지만 작은 도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해 주었다. ‘사람은 함께 사는 것이구나’,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구나’ 이 작지만 커다란 깨달음은 내 인생의 소중한 선물이다. 5차 인도 선제수련이 다음달 13일까지 접수(www.jungto.org, 02-587-8911)를 받는다고 한다. 더 많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해보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김송이(공과대 전자공학4)

가로열쇠

1. 이번에 당선된 우리학교 제38대 총학생회장 이름.
2. 정당하거나 사실임을 인정함. ↔ 거부(拒否).
4. 일정한 규율과 질서 아래 조직 편제된 군인의 집단.
6. 정보통신에서 이동성을 가진 것의 총칭. 핸드폰을 ○○○○이라고도 부름. (12면 기사 참조)
8. 제43회 동대○○○과 제 20회 동대 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3일 열림. (1면 기사 참조)
9. 한 만해 광장 터에 있던 송정전을 현재 위치로 이전, 석가모니 불상을 봉안하여 ‘○○○’이라 명명하고 개원함.
11. 벼의 껍질을 벗기 알맹이. 벗과 곡식의 알맹이. 지난 23일 ○형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 (4면 기사 참조)
14. 지난 23일 열린 ○○○○○에서 우리학교 15년 계획의 마스터플랜이 발표 됨. (1면 기사 참조)
16. 통신을 보냄 ↔ 수신(受信).

세로열쇠

1. 2006년 ○○○○ 원서접수는 오는 12월 24일부터 4일간 진행됨. 학기 중에는 수시모집이 있음.
3. 우리학교가 육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학생의 모습. (1면 기사 참조)
5. 대학의 일부로서, 학부생이 더 높은 정도의 학술·기예를 연구하는 곳. (석사 학위 과정과 박사 학위 과정이 있음.)
7. 그날에 할 일, 또는 그 분량이나 차례.
12. 옷의 꾸밈새. 옷과 그 장식품을 아울러 이르는 말. ‘○○史’
13. 프랑스의 대중가요.
15.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서 그 대표자나 임원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뽑음.

졸업요건 영어PASS제 토익시험(12월) 시행

1. 접수 : 12. 5(월) ~ 12. 8(목) 24:00까지
2. 방법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재학생서비스 - 영어PASS제- 영어패스시험 신청 - 접수증 출력 - 응시료 입금
3. 시험 : 2005. 12. 17(토) 10:00~12:30 혜화관 2층, 동국관(M) 3층
4. 대상 : 영어PASS제 대상자 4학년
5. 응시료 : 5,000원
6. 입금어금일 : 2005. 12. 8(목) 24:00까지 (미입금시 취소)
입금계좌 : 조흥 371-03-011192(Korean Program)
7. 접수 주의사항(아래 사항을 지키지 않을시 취소 가능)
가. 학적부에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모든 학사서비스가 제한됩니다.
한정분에 반드시 사진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 후 다음 주 중 접수완료안내메일을 보내드리므로, 학생개인정보의 이베일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
다. 해당마감일까지 반드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시 본인인름, 학번 또는 학과 표기 : 예, 홍길동 2025123)
라. 졸업요건 인정시험으로 12월, 1월은 4학년 졸업대상자로 한정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8. 시험일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접수증, 연필(샤프)
9. 문의 : 국제교육원 (혜화관 1층, 2260-3471, 3590)
10. 시험 주의사항 :
가. 10시00분 이후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나. 신분증,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다.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국제교육원

복수전공 포기원 신청 안내

복수전공 포기원 제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 복수전공을 지원한 후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접수기간 : 2005. 11. 28(월) ~ 12. 2(금)까지
3. 접수방법 : 복수전공 포기원을 작성하여 복수전공 해당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
4. 유의사항
복수전공 이수자가 복수전공을 중도 포기하고 제1전공만 이수할 경우에는 단일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120학점이 졸업학점인 대학은 단일전공이 45학점, 그 외 대학은 54학점이 단일전공 이수학점임)

교무처

기말고사 기간 영업시간안내

우리 생협에서는 기말고사 기간 조합원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영업하오니 많은 애용 바랍니다.

구분	내용	비고	
기간	2005. 12. 5(월) ~ 12. 13(화)	-	
대상매장	상록원매점, 분식코너	-	
영업시간	연장	상록원매점 08:30 ~ 22:30	토·일요일 정상영업
	조기	상록원분식 08:00 ~ 19:30	08:30 ~ 18:00
문의	2260-8978, 8980 http://dgucoop.dongguk.ac.kr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동국대학교 기념품매장 입찰공고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는 교내 기념품 매장을 운영업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위탁 목적물 : 동국대학교내 기념품점 매장(중앙도서관 B1)
2. 위치 :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내
3. 입찰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5. 12. 1(목) 15:00
상록원 교직원 식당 VIP1룸
4. 입찰서류접수 : 2005. 12. 9(금) 17:00까지 생활사무국 (혜화관 1층)
5. 입찰일시 및 장소 : 2005. 12. 12(월) 15:00 생활사무국 (혜화관 1층)
6. 입찰참가가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입찰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자)만 해당
다. 상가 등록증 3년이상 유효업체(자)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 조합 사업계획 및 평가방법 중 본 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에 소요되는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및 현지실사를 할 수도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입찰결과는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 게시관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사무국 (02-2260-8960, 4)
홈페이지 : http://dgucoop.dongguk.ac.kr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PS주얼리 박준길(경영4) 대표이사를 만나

“실전과 이론 겸비해 세계적 기업 만들 것”



“젊은 학생들과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요.”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 중 매년 2천만불 규모의 수출액을 달성하는 기업의 CEO가 있다면 누구나 한번쯤

관심을 보일 것이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젊은 시절 못 다한 학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생, 사업가로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PS 주얼리 대표이사 박준길(경영4) 씨.

학부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를 만나 경영인과 대학생으로서의 생활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늦은 나이에 대학생이 됐는데.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형편상 대학에 입학할 수 없었다. 졸업 후 곧바로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취직을 하고, 개인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이 점을 아쉽게 생각했다.

20여년이 넘는 직장생활과 사업의 경험으로 실전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공부를 통해 배운 이론과, 사업 경험을 통한 실전을 접목해 더 나은 경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늦게나마 대학생이 되기로 결심했다.

- 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 초기에는 국내 주얼리 시장만을 바라보고 소규모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IMF의 위기를 맞으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까지 새롭게 눈을 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고, 미국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 무대를 넓혔다.

사업을 시작했던 초기 국내 주얼리 시장은 가내 수공업 형식으로 상황이 많이 열악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수출 규모를 늘리고 유럽, 아시아 등 수출 시장을 다각화 해 현재의 국내 보석 관련 시장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 함께 공부하는 젊은 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누구나 대학 시절에는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점은 고민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하고 싶다.

고민의 시간을 줄이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분야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찾아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앞으로의 계획은.

= 현재 우리학교 경영대학원에 입학원서를 낸 상태이다. 합격하면 대학원 학생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함께 수업을 듣는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 친분을 쌓고 싶다.

이에 더해 세계 시장에서 국내의 주얼리 시장이 이태리 등의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더욱 실력을 쌓아갈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북한학연구소장 강성운 교수 인터뷰

북한 이해 증진에 도움될 터

우리학교 북한학연구소(소장=강성운·북한학)가 학술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연구사업에 선정돼 향후 2년간 6억원을 지원 받게 됐다. 이에 '분단 60년, 북한의 학문세계-특성과 평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의 책임자인 북한학연구소 소장 강성운 교수를 만나 연구사업의 내용과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들어보았다.



연구경험을 가진 전문가 자문팀을 구성해 정기적인 교류체제를 만들 계획이다.

- 연구사업의 내용은.

= 북한학문의 연구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심화연구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됐지만 '북한이 어떠한 연구를 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산발적인 자료만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북한학문의 현황과 특징, 남·북 학문비교로 분야별 학술교류 가능성을 모색했다.

현재 △한국 △북경 △동경 △장춘·연길 △기타국가, 총 4개 연구팀이 구성돼 국내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해외를 방문하고 있다. 이 팀들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북한관련 전문 학술지·논문 등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며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수집된 학술자료는 연간 4천여건에 가까운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북한대학에서

- 이번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 연구자료는 교육용 교재로 활용하고 분야별로 한국 학문사를 보완하는 등의 활용 방안이 예측된다. 연구 결과물은 홈페이지 제작으로 대중화시켜 국가적으로 북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남·북간 학술교류가 확대되면서 남·북 교육통합 정책의 기초를 제공하는 등 통일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선배를 만나다



모토로라 코리아 대표이사 길현청(회계 81졸) 동문.

글로벌한 사고가 성공의 지름길

우물'을 판 것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것 같다는 그에게서 겸손함이 전해진다.

길 동문에게 4년의 대학시절은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이었다. 대학입학 시험에서 실패를 경험한 후 재수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적으로 학업에 매진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다른 대학에 가서 평소 듣고 싶은 강의는 도강이나 청구 강을 하기도 했어요. 속된 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심정으로 공부에 매달렸지요."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할 만큼 재원이었던 그는 주로 전공과 어학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영어 원서로 공부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 그런 그의 노력이 통했는지 취업을 준비하면서 지원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고루 합격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져야 했다.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명목상 대기업을 선택했지만 금방 후회했어. 그때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는 누구도 선택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지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대기업의 업무 구조와 학연과 지연을 따지는 풍조는 그의 능력과 꿈을 발휘하는 데 장애물이 됐다. 따라서 1년여 간의 대기

업 생활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지금의 외국계 글로벌 기업인 모토로라 코리아의 입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러한 '아픈' 경험 때문인지 그의 경영철학은 '직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자가 되자'라고 한다. 그는 "다른 대기업들은 회사가 최고가 되는 것을 강조하지만 우리 회사는 직원 개개인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직원 개개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야 회사도 곧 최고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라며 경영자로서의 포부를 덧붙인다

그는 요즘 한창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눈을 넓히고 생각을 전환해 보라고 권장한다. "학생들은 취업을 할 때 국내 시장이나 대기업 등 한정적인 부분만 바라보는 것 같은데 글로벌 사고로 외국 회사나 외국계 기업으로까지 발을 넓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사업 규모를 더욱 확장해 국가 경제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는 길현청 동문. 그에게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동구맨'의 패기와 열정을 읽을 수 있었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인물동정

정각원장 진월스님 세계종교자 이사회 참석



우리학교 정각원장 진월스님이 지난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타이완 세계종교 박람회 등에서 열리는 '엘리자 세계종교지도자 사회'에 참석한다.

이번 이사회는 불교를 포함해 유대교, 기독교, 회교, 힌두교 등 세계 주요 종교 대표자로 구성돼, 종교계의 질적 향상과 세계평화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3년에 창설된 것이다.

이에 더해 진월스님은 다음달 11일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리는 '종교, 문화간 대화국제회의'에도 불교 대표로 초청돼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 진월스님은 '분쟁극복을 위한 전통들 사이의 긍정적 사고 작용'에 대한 원탁회의에서 '불교적 평화문화'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혈창작문학상 대상에 문창과 임세화 양 선정



지난 11일 중앙대 문예창작학과와 중대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제15회 의혈창작문학상'에 우리학교 임세화(문예창작3) 양이 소설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작품은 '네버랜드'로 정통적인 독법에서 벗어난 작가의 '시선' 하나로 작품 전체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심사위원 소설가 박정호 씨는 "시종일관 작가의 예리하고 냉정한, 섬세하고 세련된 그리고 내밀하면서 동시에 외부 세계에 대한 직관적인 관찰력이 지배적으로 드러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에 대해 임 양은 "앞으로도 많은 글을 읽고 쓰고 싶다"며 "학과 여러 교수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제4회 동국청우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제7-10대 회장이었던 최우 최재구 선생의 동국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제4회 동국청우상' 수상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받습니다.

- 1. 추천대상 : 동문, 교수, 직원, 학생
2. 구비서류
1)후보자 추천서(A4용지에 자유형식으로 작성) 1통
2)후보자 공적서(A4용지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 1통
3)후보자 이력서(사진 첨부) 1통
4)공적 증빙자료(제출가능자에 한함) 1부
3. 접수기간 : 2005년 11월 30일까지
4. 시 상 : 상패 및 부상(순금 30돈)
5. 시 상 일 : 2005년 12월 15일(총동창회 '동국인의 밤' 행사장)
* 추천은 개인 또는 단체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것은 최우 최재구 선생 추모사업회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100-715) 서울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만해관 352호실 전화 016-896-3916(윤진영) / 2260-3985(신관호)

청우 최재구선생 추모사업회 회장 류 주 형

동국대학교 100년/불교학과 100년 2005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문회 총회 겸 송년회

창설 100주년을 맞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문회의 2005년 총회 겸 송년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동문회원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일시 : 2005년 12월 5일 (월) 18:00
2. 장소 : 소피텔 엠바서더호텔 그랜드볼룸
3. 참석 대상 : 불교학과 서울 및 경주캠퍼스 졸업생,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수료생
4. 참가비 : 50,000원
5. 연락처 : 02-2260-3835 (동국대 교수회관 120호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문회공동회장 성 광·권오현 합장

2006년 행정고시·외무고시 1차 대비 전국모의고사 실시

- 1. 대상 :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에 뜻이 있는 모든 동국대 학생
2. 일시 및 장소 : 2005년 12월 4일 일요일 10:00-16:10, 동국대 M동 303호
3. 시험과목 : FSAT 및 헌법
4. 원서접수 : 계신고시학사 내 참고열람실(박진희 조교 : 2260-3571)
5. 추후 모의고사 일정
· 제3회 모의고사 12월 4일 일요일
· 제4회 모의고사 1월 8일 일요일
· 제5회 모의고사 2월 5일 일요일
6. 기타사항
· 접수비는 따로 없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 김연수 조교(010-9890-2579) 및 박진희 조교(2260-3571)에게 문의바랍니다.

행정·외무고시·언론사시험반 지도위원회

2005 -겨울학기 사회봉사 수강신청 안내

Table with columns for course name, social service, and application details. Includes rows for application methods, school location, and exam dates.

동국참사람봉사단

문화단신

음악이론 페스티벌 개최

'음악이론 페스티벌 2005'가 오는 2일까지 한양대와 서울대 등에서 열린다. 국내외의 음악이론가와 음악학자, 연구자들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음악이론계의 세계적인 석학인 미국의 '앨런 포트' 예일대 석좌교수와 '버크 하트' 뉴욕대 퀸스칼리지 명예교수 등이 참가해 기조연설과 특강을 한다.

특히 대회기간 중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KSMT)가 창립래 그동안 우리나라에 부족했던 음악이론 관련 논문들이 다수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서양음악이론 특강 △콘서트 △작품분석을 결들인 피아노 연주 △망각된 작곡가들의 작품연주회 등이 함께 열린다.

6·15 민족문화인협회 결성

지난 21일 남쪽의 민족문화작가회의와 북쪽의 조선작가동맹은 '6·15 민족문화인협회 결성을 위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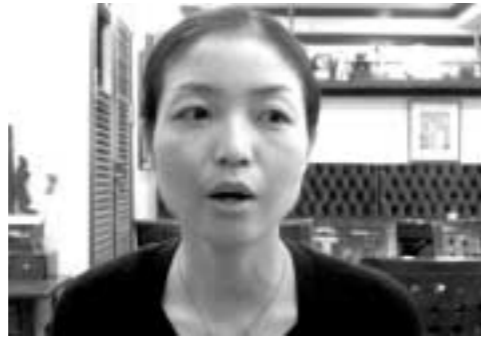
이에 따라 지난 7월 평양과 백두산 등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에서 합의된 '6·15 민족문화인협회'가 올해 안에 출범할 예정이다.

북쪽은 김덕철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위원장을, 남쪽은 김형수 민족문화작가회의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다음 달 초에 열리는 실무회담에서 '6·15 민족문화인협회' 결성식 등에 대한 추후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으며 이는 조국통일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전통의복 만드는 김정아 씨

“민족 정서 담긴 우리 옷이 좋아요”



우리의 전통의복은 우리 민족의 생활상과 정서, 미적 감각 등을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때문에 현대에도 이를 계속 이어가자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잇는 데에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다소 생소한 분야이지만 그 가치를 알고 묵묵히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화여대 대학원 복식사전공 박사과정 에 있는 김정아(32) 씨이다. 그를 만나 우리나라 전통 복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우리 전통의복만의 매력은.

= 일단 의복의 구성법이 서양과 다르다. 서양 의복은 입체적인 반면 우리의복은 평면적으로 구성돼 특이한데, 이 독특한 점에 때때로 전통의복을 공부하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 의복은 섬세하고 화려한 중국·일본 의복에 비해 소박하고 편안하다. 이는 '백의민족'이라 일컬어지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나타내는 점이기도 하다.

연재기획 - 우리 문화를 찾는 젊은이들
우리 전통문화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나본다

편집자

- 전통의복을 만들어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전통의복을 제작하려면 우리가 어떤 의복을 입는지, 사람들이 어떤 전통 의복을 선호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때문에 전통의복을 제작하는 업계와 협력이 필요하지만 학교와 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고증을 통한 연구 자료를 업계에 제공하고, 업계는 일반인이 선호하는 전통 의복의 형태를 제안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 전통의복을 생활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 한복은 서양의복에 비해 여유 있게 재단돼 있기 때문에 변형하면 생활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다. 또한 웰빙 흐름과 더불어 천연염색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옷감을 개발해 천연 염색 옷감의 단가를 낮추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 학교에서 전통의복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계속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 이 외에도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해 전통 복식을 제작하면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자 한다. 또한 한류열풍으로 최근 우리 전통의복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만큼 해외에 우리의 전통의복과 함께 역사를 전하는 데에 노력할 것이다.

lee123@dongguk.edu

내가 좋아하는 문화예술인



연극연출가 안민수

연극연출가인 안민수선생과의 만남은 1981년 동국대학교 교정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20년 이상의 긴 시간동안 선생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선생의 수업을 통해 예술가에 대한 기본정신을 배웠다는 것을 잊을 수 없다.

선생은 두 가지 면에서 내게 영향을 주었는데 하나는 교육자로서의 면모이고 다른 하나는 예술가로서의 측면이다. 선생의 주전공은 연극연출이지만 연출 외에도 연기술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선생의 예술론은 몇 가지 주안점이 있다. 예술가의 쟁이질, 즉 우리 과거 역사 속에서 '판따라'라고 불렸던 천한 광대예술을 비하하지 않고 스스로 자존심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것. 그는 예술을 즐겁게 잘 노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의했다.

이 간단한 정의 속에는 그 누가 정의한 복잡한 예술론보다 참된 금과옥조가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예술의 과학적 원리를 중시했다. 종래 기성세대들은 예술을 기본이나 멋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선생은 예술창작이 철저히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것이라 점을 강조했다. 그러다보니 그의 유명한 말이 떠오른다. "무조건 열심히 하

캐변에 숨겨진 진리
일생의 지침 일깨워

면 빠져들어진다"는 것이다. 종래의 열심히 하면 된다는 성실론에 대해 반대되는 말이다. 예술지망생들은 항상 열심히 한다는 것을 최고의 원리로 삼았는데 안선생은 이 말에 대해 수정을 가한다. "정확히 열심히 해야 목적을 달성한다" 안선생의 논리는 캐변 같지만 사실은 뒤집힌 진리이다.

또 이런 말도 있다. "싸구려로 놀지 마라" 그는 예술가의 지조를 특히 강조한다. "예술가는 돈을 좇아가지 말고 돈이 좇아오도록 해야 한다" 살아가면서 이러한 말이 맞는 생각을 많이 한다. 한참 인기가 오른다고 하여 싸구려로 놀던 예술가 혹은 연예인들은 그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하고 만다. 대신 자신의 품위를 계속 만들어나간 사람들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작품의 진가가 올라가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장인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배우는 성우(聖優)라고 했다. 가장 위대한 배우는 바로 성인(聖人)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위대한 배우는 석가나 예수란 말인가? 이러한 가르침은 학생시절의 나에게 충격을 안겨줄 정도로 캐변이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일생 나에게 커다란 가르침으로 남는다.

안선생과 나의 인연은 고등학교 시절로 넘어간다. 고등학교 입학년때 장학퀴즈에 나간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맞춘 답 가운데는 안민수의 연극 '하멜태자'의 이름이 있었다. 70년대 한국연극사에서 미국공연을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던 그 연극을 난 당시 보지는 못했어도 지식인의 교양으로 이름은 알고 있었다. 내가 맞췄던 그 연극의 연출자를 대학에 들어와 만나게 되었고 그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될 줄이야. 80년대 중반 안민수의 '리어왕'을 보고 브레히트와 아르보의 세계를 이해했다.

난 안민수의 연극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고 싶었는데, 아쉬운 것은 많은 한국인이 그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광고동아리 AD.RUSH 전시회 개최

독특한 발상 돋보이는 행사

크리스마스를 한달 여 앞둔 요즘,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소품들이 하나 둘 진열돼 우리를 들뜨게 한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동과 내에 미리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다. 우리학교 광고 중앙동아리 AD.RUSH의 12번째 광고 전시회가 그것이다.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학생회관 옆 정보나눔 쉼터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fall in D-mas'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AD.RUSH 이인(전기2)회장은 "산타클로스를 믿었던 우리의 순수한 동심을 재현해보고자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광고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전시회에는 AD.RUSH 회원들이 광고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 21점이 전시됐다. 또한 전시장은 주제에 걸맞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트리, 인공 눈발 등으로 꾸며졌다. 뿐만 아니라 산타클로스 분장을 한 동아리 회원들이 관람객을 맞았으며 이들이 직접 작품 설

명을 해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와 달리 옥외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새로운 시도였다. 이 회장은 "건물 내 마땅히 전시회를 열만한 공간이 없어 옥외 전시회를 열었는데 예년보다 학생들이 쉽게 찾아오는 등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 OX 퀴즈 △산타클로스와 기념사진 촬영 등의 이벤트로 전시회가 더욱 풍성했으며, 산타 분장을 한 회원들이 학내를 돌아다니면서 1대1 홍보를 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동과 내 열린 공간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낸 행사가 흔치 않아 이색적이었다는 평이다. 전시회를 관람한 최진용(불교1) 양은 "산타클로스와 기념촬영을 했는데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아 재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시 첫날 이벤트와 행사장 정리가 잘 되지 않아 관람객들로 하여금 전시작품만 관람하고 돌아가게 했던 점은 미숙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또한 날씨와 기온이 행사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등 옥외 전시의 단점이 눈에 띄기도 했다.

최근 이렇듯 학생 참여를 이끌기 위한 동아리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몇몇 동아리의 이러한 움직임이 동아리 전반으로 확대되어 앞으로 보다 활발한 학내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해본다.

lee123@dongguk.edu



미디어

다각도로 찍어라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많은 반복을 통해 계속 노력하면, 일을 뜻대로 이룰 수 있다는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속담이다. 하지만 도끼가 무뎠서 그런지, 찍는 방법이 잘못됐는지 아무리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나무는 반드시 있다.

▲지난 23일 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농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어 됐다. 쌀시장의 완전 개방은 10년 뒤에 되지만 다음해 3월 쯤이면 수입쌀이 시판돼 우리식탁에 오를 예정이다. 물은 이미 었질러졌다. 때문에 농민들은 이제 분노와 반발을 조금씩이政府和 국회 그리고 농민 모두가 함께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주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위기가 기회" 라는 말이 있다. 이미 이렇게 결정 됐으니 이를 기회 삼아 앞으로 남은 10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우리 농촌을 되살려야 한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100조 여 원을 쏟아 붓고도 농촌은 낙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농가부채만 2.5배 늘어났다. 농민들은 쌀

개방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10년 간 농촌에 대한 정책 실패를 초래한 우리의 정치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제 더이상 주먹구구식 처방은 안된다. 정부는 국제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교하고 세심한 농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 쌀과 외국 쌀이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되는 지금, 쌀 개방의 근본 대책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리저리, 여러 곳을 열 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아무리 열 번을 찍어도 넘어가지 않을 때는 도끼 탓만 하지 말고 찍는 방법을 바꿔보자. 새로운 방법을 하나씩 도입해보면서 좋은 방향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다. '왜 이 방식은 안 될까'라는 고민을 되풀이하면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나무를 반드시 쓰러뜨리고 싶다면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황추상 편집장

hjs228@dongguk.edu

동국 락뮤직 동영상 시사회
DGU Power Live
장소: 중앙도서관 AV실
11월 29일(화) 오후 6시 : 'Rush' Rock in Rio
12월 6일(화) 오후 6시 : 'Nirvana' Live & Loud
12월 13일(화) 오후 6시 : 'U2' Elevation 2001
주최: 동국락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주관: 락동아리 피어리스 단

연극학과 제43회 졸업공연
세자매
안단체출작 <세자매>
연출: 안형민
기획: 장원희(010-4577-4125), 김태형(011-9974-1994)
일시: 2005년 12월 2일 ~ 6일 (5일동안)
오후 4:00, 7:00 (하루 2회공연)
장소: 동국대학교 문화관 예술극장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출구)
공연 당일 공연을 보러 오는 학생들은 꼭 학생증을 지참해 오시길 바랍니다. 학생증 확인 후 LG전자에서 협찬을 받은 최신마우스와 마우스패드 USB 등 여러 컴퓨터 용품을 선착순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멀티미디어 음악공연
보는 소리 듣는 영상 II
Seeing Sound Listening Image II
2005년 11월 30일 ~ 12월 2일 저녁 7시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주최: SIMM 한국멀티미디어음악학회,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
주관: 동국대학교 출판부영상문화사업단,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소
한국디지털미디어학회, OPLS 130-701
협찬: 미디어랜드 - 성우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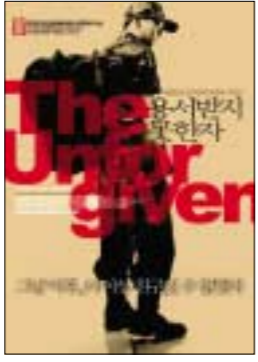
취업특강(중소기업 아카데미) 공고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반기 [취업특강(중소기업아카데미)]을 개최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대 상 : 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강의과목별 100명 선착순)
모집기간 : 2005. 11. 22(화) ~ 11. 28(월)
신청장소 : 취업지원팀 (본관 2층)
교육기간 : 2005. 11. 30(수) ~ 12. 2(금) 10:00 ~ 18:00
교육장소 : 다학관세미나실
취업특강 주요내용 :
일자 시간 교육명 교육내용 강사
11월30일(수) 10:00~11:50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전략 프레젠테이션 기본 이론 및 실무응용 (파워포인트 드로잉 테크닉 등) 김경은 전문강사
13:00~14:50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전략 프레젠테이션 기본 이론 및 실무응용 (파워포인트 드로잉 테크닉 등) 김경은 전문강사
15:00~16:50 성공 면접 클리닉 입찰법/면접유형별 질문 대응 전략/표준적 대처법 함초이태리 원장(진이사)
12월01일(목) 10:00~11:50 커리어 포트폴리오 전략수립 체계적인 경력 관리 및 사례분석 진로교육상담팀 박신희 상담원
13:00~14:50 여성전문직 특화 취업전략 전문직종의 여성진출/직종별 분석 (공기업, 공무원, 비서, 언론 및 출판분야) (주)아이유레카 류재홍대표
15:00~15:50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청년실업 중소기업 현황과 청년실업 대책 소개 서울중소기업정책지원과장
16:00~17:50 유망 중소기업 입사전략 중소기업의 정령, 특징 및 입사전략 (주)휴리스 인성원(휴리스고문)
12월02일(금) 10:00~11:50 직업홈페이지를 통한 내 직업 찾기 스토브 직업홈페이지 오리엔테이션 및 실사 취업지원팀 장지용 상담원
13:00~14:50 성공취업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면접장 이미지 연출법 (복장, 코디, 인사, 자세 등) 이정은 (이미지컨설팅팀)
15:00~15:50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이해 중소기업의 위상 및 정부정책 소개 서울중소기업정책지원과장
16:00~17:50 입사서류 A to Z 이력서 / 자기소개서 작성의 모든 것 (성공적인 입사서류 작성방법) 엘리크코리아(주) 류정원컨설턴트
※ 위 교육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강의과목별 신청이 가능하며, 참석자 전원에게 『취업교실』책자 및 『기념품(문화상품권 등)』 제공.
※ 12월 1일과 2일 중소기업관련 특강 참석자에 한해 디지털카메라 및 MP3 player가 경품으로 제공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학생처 취업지원팀

매체비평

영화편

용서받지 못한 자

인간본성의 사실적 묘사로 사회가 만든 모순 그려내



대한민국 남자 90% 이상이 군대를 다녀왔지만 정작 그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가 본 사람만이 알 뿐 같은 걸 드러내지 않는다. 바깥세상으로 표출되는 군대는 단지 장황하게 포장된 '무용담' 뿐이다. 이것조차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대부분이 말하기를 꺼려한다. ' 좋지 않은 기억'이기 때문이다.

최근 군대이야기의 속내를 대담하게 건드린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는 이같은 의미에서 그 시도부터 남다르다. "소재를 잡은 뒤 시나리오 작업을 하기 위해 군대 다녀온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니 모두 똑같더라"며 "평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라는 윤종빈 감독, 그렇게 '누구나 알고, 겪었으며, 지금도 많은 이들이 겪고 있기에' 오히려 '아무나' 도전하지는 못했을 터이다. 때문에 그의 실련성은 더욱 주목받는다.

한 내무실에 있는 선후임병 간의 미묘한 심리적 갈등을 묘사해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에 일침을 가하는 이 영화는, 우리가 동기 혹은 선·후배에게 별 생각 없이 장난스럽게 말하던 '군대 다녀와야 사람

된다'는 말을 곱씹게 만든다. 그렇게 군대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과연 우리 사회가 원하는 사람인지는 분명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군대에서 '사람 만드는' 방법은 하나, 바로 명령과 복종이다.

물과 기름이 섞여 왜 '물광'이 나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선임병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후임 팬티를 훔쳐 입어도 선임병은 텃텃하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 불만을 품는 후임병이 한마디로 '교육이 될 뻔' 것이다. 또한 장난을 빙자한 성추행에 반기를 드는 후임병에게 돌아오는 것은 주먹과 욕설이다.

신참 '승영'은 처음에 이러한 군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하지만, 중학

교 동창이자 고참인 '태정'의 그늘이 떠나자 그도 결국 서서히 '적응'해간다. 어리버리한 후임 '지훈'에게 남들과 다를 바 없는 고참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반면 '지훈'은 끝내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승영'의 죄책감으로, 곧 '태정'의 죄책감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영화는 인간의 내재된 본성과 이를 이끌어내는 '군대'라는 환경에 대해 매우 현실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게다가 관객들로 하여금 이러한 현실에 대해 자연스러운 비판을 가하도록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군대가 만들어내는 사람'에 대한 회의감은 들게 한다.

'용서받지 못한 자'가 많은 이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은 가장 대중적인 소재를 가장 현실적으로 그려냈기 때문이다. 또한 적절한 곳에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배치해 영화가 지나치게 감상적이거나 사색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감독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적당히', 그러나 '분명히' 전달한다.

이처럼 영화는 관객들이 한번 보고 잊거나, 단순히 웃음으로 끝나도록 만들지 않는다. 제목 그대로 '용서받지 못한 자'인 지훈과 승영, 태정이 결국 대한민국 사회를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최민희 문화부장
mh705@dongguk.edu

문화재, 박물관 벗어나 디지털로

얼마 전 모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촬영하는 도중 서울 정동 덕수궁 담장을 훼손해 비난을 받았다. 덕수궁 담장에 100미터 길이의 포스트잇을 붙였다 때는 과정에서 담장이 벗겨지고 굽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관리 소홀로 훼손·도난 빈번

이처럼 우리 문화재는 종종 부주의한 관리 등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전통문화도시 강릉시에서는 중요민속자료 제5호 '선교장'과 도유형문화재 제46호 '입경당'의 고서적·병풍·목공예품·주련 등을 도둑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경방백 부지'는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부지의 일부가 매각돼 원형 훼손의 논란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국보로 지정된 충남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은 옥개석이 훼손되고 지대석이 노출돼 부분보수와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며, 석가탑과 다보탑은 △기단 하부 변형 △기단 갑석 처짐 △풍화

훼손 △복합굴열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보수와 보존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듯 문화재 훼손이 빈번해짐에 따라 복원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첨단기술로 문화재 복원을 시도하는 '문화재 디지털 복원' 사업을 확장 중에 있다.

그 예로 지난 2월 문화재청장은 "1916년 경의 광화문 정면사진을 디지털기술로 분석해 현판의 글씨와 테두리 문양을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1949년에 처음 발견돼 당시 심한 훼손을 입었던 고구려의 안와 3호분을 이 같은 기술로 최근 복원했으며, 현재는 고려시대의 전통 복식을 재현해 문화콘텐츠 개발에 활용하도록 하는 3D 모델이 개발 중이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 출신의 당나라 장수 '고선지'의 활동 무대를 컴퓨터그래픽을 이용 3차원 영상으로 제작해 TV에 방영하기도 했다.

이를 제작한 디지털 복원 전문가 박진호 씨는 "디지털 기술로 문화재를 복원하면 과거를 보다 현실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다"며

"디지털 복원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줌과 더불어 미래를 제시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콘텐츠 개발로 문화 폭 넓혀

나아가 첨단기술로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원된 문화재를 활용해 새로운 문화 산업 창조를 시도하도록 하는 사업이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까지 5년간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이 그것이다.

디지털콘텐츠란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부호·문자·음성·영상 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처리·유통하는 자료와 정보 등을 말한다.

문화원형을 △의식주 △건축 △의례 △신앙 △교통 △통신 △군사 △외교 △역사 △민속 △예술 △과학기술 △문학·문헌으로 분류해 전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한 소재 발굴에서부터 창작소재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

발과 운영까지 행해지고 있다.

또한 창작소재뱅크를 운영해 문화원형전시관에 있는 콘텐츠를 직접 구매해 활용할 수 있는 B2B 기반의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사업팀 이해는 대리는 "웹상에서 문화소재를 구입한다는 개념이 아직까지 생소하지만 게임·영상·캐릭터·음악 산업에서 점차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기존에 활성화 된 문화분야만이 아닌 애니메이션·캐릭터·만화 사업에도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중요 가치를 가진 유적·유물들을 3D로 제작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 전통 문화 보존은 물론 이를 통한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풍부한 문화를 양성하는 한편, 우리 문화의 세계적 가치를 알리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lee123@dongguk.edu

대학내 문화재 보존 실태 점검

대학가는 여전히 '아날로그'

대학 내 문화재의 보존·복원 실태는 어떨까. 우리학교 문화재는 서울시 지방유형문화재 제20호인 승정전(정각원)과 박물관에 전시된 불교유물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학교 박물관은 국보급 문화재 2점과 보물 지정문화재 11점 등 3,000여 점 이상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어 소장 면에서는 대학 박물관 중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물창고에서 가습기와 온도조절장치로만 유물을 보관하

는 등 빈번한 보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정각원은 지난 3월 법당 대수선공사(기와교체, 기존 단청보수 등)가 이뤄졌다. 그런데 이 수리 과정에서 원형 그대로 복원하지 않고 지붕에 높게 시멘트를 발라 놓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공사를 담당한 서울시와 학교 측은 서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려 해 문화재만 훼손 위기에 처해있다.

성균관대의 경우도 캠퍼스 내 사적지 143호 서울 문묘일원 보존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 문묘일원 중 '양현재'를 중앙유학부 학생들이 약 50년 동안 무단으로 기숙사로 사용해 지난 7월 총장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반면 이화여대는 학내 문화재 등 전통문화 보존에 있어 새로운 발전을 꾀하고 있다. 출토 복식에서 컴퓨터 기술로 훼손된 문양을 재현하

거나 옷감의 재질을 짜기도 해 전통 복식의 재발견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에서는 새로운 특별전 개최 및 보유 유물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대학박물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내 문화재도 시대흐름에 맞춰 디지털 기술과 융합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친근하게 학내 문화재를 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홈페이지 운영, 유물의 디지털콘텐츠화를 통한 수업에의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캠퍼스 내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당국부터 책임감을 갖고 적극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
niitake@dongguk.edu

이색 문화콘텐츠

디지털폰트 '월인석보체'

디지털폰트 '월인석보체'는 1459년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개고해 합편한 책 '월인석보'를 토대로 제작됐다. 디지털폰트 제작 과정은 고문서를 고해상 스캔한 자료 중 필요한 글자를 추출해 만든다. 월인석보체는 고딕체와 명조체의 중간쯤에 해당돼 가장 안정되고 소박한 서체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듯 훼손된 고문서의 글꼴을 디지털폰트로 개발하면 고문서의 가치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으며, 그래픽디자인 소스·모바일·PDA·e-Book·DMB·방송 등의 폰트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소리 정리한 '한국의 소리은행'

'한국의 소리은행'은 구전으로 내려오거나 전통 속에 숨어 있는 우리 소리를 정리해 디지털콘텐츠로 만든 것이다. 소리은행은 △전통문화에 등장하는 소리 △구전민요에 등장하는 소리 △설화에 등장하는 동물과 자연의 소리 △근래소리와 기타소리로 나뉘어져 있다. 이는 다류멘터리·벨소리·클러링·효과음 등으로 사용되며 현재 음원을 CD로 제작해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치우천왕' 모바일 게임

우리나라의 신화에 등장하는 '치우천왕'을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이 개발됐다. 이를 개발한 업체는 우리의 신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든 '영제편'과 '치우편' 등 2개의 모바일 게임을 이동통신사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한국 신화 게임을 시리즈로 개발할 계획이 있어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문화부
dgupress@dongguk.edu